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왜 고려 무인집권자는 새 왕조를 개창하지 않았는가? (김창현, 2007)
무신 정변의 발생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을 겪으면서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왕권이 약화되었다. 인종에 이어 즉위한 의종은 즉위 초 문벌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보수적인 문벌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정치에 뜻을 잃고 일부 문신과 함께 연희와 놀이에 빠졌다. 한편, 문벌의 권력 독점과 부패가 계속되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하급 군인은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어 불만이 커졌다. 게다가 일부 문신이 노골적으로 무신을 무시하자 무신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결국 정중부, 이의방 등은 정변을 일으켜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하였다(무신 정변, 1170). 최씨 정권의 성립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회의 기구인 중방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러한 혼란은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뒤 수습되었다.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또한 사병 집단인 도방을 확대하여 호위를 강화하였다. 그의 아들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고, 서방을 설치하여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규보와 같은 문신이 등용되었다. 한편, 최우는 야별초를 조직하여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최씨 정권은 4대 6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사회 개혁에 소홀하였고,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1. 고려시대 왕의 권위 1) 왕의 권위 출처 ① 태조 왕건 권위의 출처 : 발해와 신라의 귀순, 후백제 멸망, 고구려 부흥 ② 후계 국왕 권위의 출처 : 태조 왕건, 고구려와 신라의 계승자 2) 왕의 권위 강화 및 약화 ① 왕의 권위 강화 - 광종·성종대 안정, 문종대 절정 - 후백제 지역 사회 통합, 국왕과 왕실 신성화 ② 왕의 권위 약화 - 인종대 이자겸의 정변, 서경 묘청의 정변 - 하지만, 왕실의 신성설 여전히 유효 2. 어느 무인이 왕이 될 만했나 1) 초기 무인 집권자 : 집권 기간 짧음, 중방을 통한 연합정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어려움 2) 최씨 정권 ① 최충헌 : 왕위에 오를 명분 부족, 왕(신종, 강종, 고종)들의 순종 ② 최우(최이) : 최산보의 비밀건의 누설, 고종의 순종, 강화 천도 후 대몽항쟁을 위한 구심점(왕) 필요 ③ 최항, 최의 : 권위 약함, 미천한 출신 3) 후기 무인 집권자 : 연합정권, 몽골과 화해를 주도한 국왕과 문신 위상 상승 4) 삼별초 정부 : 여·몽 연합군에 진압 3. 왕조 개창의 비밀은 무엇인가 1) 왕조 개창의 조건 ① 압록강 이남으로 영토가 축소된 이후 통제가 쉬워지면서 왕조 교체가 어려워짐 ② 하지만, 실력, 명분과 논리, 지역 기반, 정치세력, 국내·외적 시대 상황 등 조건이 갖추어지면 왕조 교체가 이루어짐 2) 무인정권 시기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① 무인 집권자 중 왕조 교체를 할 능력을 갖춘 인물은 최충헌, 최우지만 명분과 논리, 정치세력, 시대 상황 등 조건이 부족함 ② 지방이 아닌 중앙에 기반한 무인정권이 왕조 교체를 하기는 어려움 3) 무인정권의 의의 ① 무인집권자가 왕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한 정치구조를 만들어냄 ② 일본 막부정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일본 막부정권의 전개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왜 고려 무인집권자는 새 왕조를 개창하지 않았는가?’ 질문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미래엔	3-1-3. 문벌사회가 중요하고 무신정권이 수립되다	무신정변은 왜 일어났는가 (하현강, 1991)
무신 정변 (90쪽) 고려에서는 문신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어 문신이 군사 지휘권까지 장악하였다. 고려 초부터 무신과 하급 군인들은 문신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온갖 잡역에 시달렸다. 왕위에 오른 의종은 측근 문신 세력과 친위 부대의 무신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두 세력이 대립하였고, 정중부와 이의방 등은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 정변을 일으켰다(1170). 이들은 차별받던 무신들을 이끌고 수많은 문신을 살해한 뒤 의종을 폐위하였다. 무신들은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문신 중 일부는 무신 정권에 저항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권력 다툼이 벌어지며 무신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의민처럼 천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무신 정변의 배경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중, ……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병수박회를 열었다. 한회는 무신들이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하며 시기심을 품었다. 대장군 이소응이 수박회에서 패하자, 한회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응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고려사』-			1. 머리말 가. 무신정변: 고려왕조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 정치, 사회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함 나. 선행연구: 의종의 실정(근대 이전 정통사학), 문무반의 차별대우, 일반군인들의 불평 불만 다. 문제제기: 이전 시대에도 차별대우와 일반 군인들의 불평 불만이 있었음. 왜 하필 의종시대였을까? 2. 諸說의 검증과 의문의 제기 가. 의종의 실정에 관한 문제 1) 의종보다 실정이 훨씬 더 심한 제왕도 있었음. 2) 무엇보다 의종의 실정과 관계된 기사들의 신뢰성 검증 필요. -> 정말 의종이 실정을 했을까? - 의종이 왕위에서 축출된 후 3년 후 의종 복위 운동(김보당의 난), 무신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조위충의 난 나. 문무반 차별에 관한 문제 다. 일반군인들의 불평·불만에 관한 문제 -> 두 사례 모두 의종시기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음 3. 귀족정권 붕괴(=무신정변 발생요인) 의 내적 요인 가. 의종의 실정 이유와 배경 1) 귀족 세력의 정치권력 장악, 의종은 정치적 권력 행사 X - 의종의 정치적 실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음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놀이에 빠지게 된 숨은 이유 - 문종대에 귀족 세력의 황금기. 이후 지도력을 상실한 채 권력투쟁에 집착하면서 추악한 모습 (예. 이자겸의 난) -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① 고려 왕실의 견제기반(서경세력) 상실 / ② 난을 진압한 귀족들의 발언권과 횡포가 더욱 커짐 2) 의종 나름대로 국왕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함 - 고려 왕실의 중흥 (의종 8년 9월, 서경에 중흥사 창건 / 의종 12년 9월, 백주에 중흥이라는 별궁 창건) - 정치에 임하는 군주의 자세가 어떤 지 알고 있었음. 그러나 현인을 얻지 못해 실현하지 못함. 3) 당시 집권 귀족층 중에는 의종을 따르고 위하는 인사들이 없었음 - 따라서 불교 등과 같은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호화로운 별궁을 지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수 밖에 없었음 - 절박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왕궁을 떠난 잦은 행차로 보여짐 나. 의종대에 무신정변이 일어난 원인 1) 당시 집권층의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서 오는 정치지도력의 상실 2) 왕권과 귀족세력간의 정치적인 대립강들과 더욱 심화된 왕권의 권위 실추 3) 귀족들 상호간의 대립 갈등 4. 진행과정을 통해서 본 무신정변의 성격 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초기, 의종은 축출의 대상이 아니었음. (“이고가 어찌 감히 御前에서 칼을 뺨단 말인가” - 의종이 추방되는 계기는 왕광취(王光就)가 무리를 모아 정중부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누설된 이후 - 의종이 정변 이후 정변 주역들을 회유할 수 없으며, 국왕으로서의 위엄을 부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제거를 생각 나. 정변은 충동적이지 않음. 거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그 계획이 치밀하지는 않았음.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수업할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과 경과 보다는 결과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무신정변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음. 2. 토론주제 : 무신정변 vs 무신혁명 -> 모의재판(의종)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부여, 고구려사 기록 / 의종의 실정 / 조선왕조실록, 수정실록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3) 정치 질서가 중요하고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김아네스, 2021, 「고려 무신집권기 왕권과 의례 - 왕실 조상 숭배의례를 중심으로 -」, 『석당논총』 80, 161-192쪽.	
1.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을 겪으면서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왕권이 약화 2. 인종에 이어 즉위한 의종은 즉위 초 문벌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보수적인 문벌의 반발에 부딪혀 정치에 뜻을 잃고 사치 향락에 빠짐 3. 무신 정변으로 의종 폐위 후 의종의 동생인 왕위를 계승한 의종은 국왕으로 세움 ▶ 김창현, 2007, 「왜 고려 무인 집권자는 새 왕조를 개창하지 않았는가?」 - 정변에 성공한 무인들은 의종 축출 후 이익민을 보내 의종 살해 - 고려 국왕의 권위가 무너졌으나 새 왕조 개창을 이루어지지 않음 - 왜 그런가? 왕은 정통, 전통, 권위, 신성을 지닌 조원적인 존재로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존재 - 새 왕조를 개창에는 뛰어난 실력과 명분, 논리를 개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기반이 필요(무인 정권은 중앙에 기반), 또 무력을 제공하고 명분과 논리와 전략을 만드는 정치 세력이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시대 상황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맞아야 함 - 무인 정권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물은 최충헌과 최우 정도, 그러나 명분과 논리가 부족 4.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 역할 5.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중요 정책 결정 및 집행 6. 최씨 정권은 4대 6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였으나 사회 개혁에 소홀하고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 7. 전국 각지에서 농민과 천민이 봉기			I. 머리말 1. 고려전기 왕들은 다양한 의례를 주관, 의례의 의식절차를 통해 왕실의 존엄을 과시하고 신민과 구별되는 지위 획득 (군주의 유교적 이상 통치 상징적 구현) 2. 무신 정권 성립 이후 국왕이 주재한 의례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하며 특히 왕권의 정통성을 표상하는 왕실 조상 숭배 의례에 초점 II. 명종대 국왕의 의례 실행과 왕권 확립을 위한 노력 1. 무신 집권기 실질적 권한이 줄어든 국왕은 의례의 기능을 활용하여 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특히 명종은 왕실 조상에 대한 숭배 의례에 적극 2. 명종이 재위하는 동안 조상 숭배 의례 연평균 횟수는 예종, 인종에 이어 3번째 3. 명종의 의례 특징 세 가지 - 왕이 스스로 책망하는 글을 지어 태조 신위에 용서를 구하는 '고제'를 지냄, 조위종의 난과 망이·망소이의 난으로 고려 왕조를 위기 빠뜨린 죄를 고함, 이는 천명을 받아 왕조를 세운 태조의 후계 명종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태조 숭배 신앙으로 볼 수 있음 - 조위종의 난을 토벌하고 왕조의 안녕을 이룬 일을 조상신과 연결 지어 왕업의 계승자라는 점에서 무신 집권자와 구별되는 지위를 얻음 - 모후인 공후태후의 국호를 최고의 격식으로 높여 국왕의 상제와 다름없이 실행, 공후태후가 홍서한 때는 경대승 사망 후 이익민이 상경하기 직전, 따라서 명종은 공후태후의 국호 의례를 통해 왕권을 확립하고 이익민과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고 볼 수 있음 4. 재위 후반 명종은 열병 의례를 복설하여 왕이 군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과시	III. 신종대 ~ 고종대 최씨집정의 의례 개정과 참용 1. 최씨 집권 이후 명종 때보다 왕권이 크게 약화, 최씨가 국왕의 의례 주재에 관여하여 그 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 특히 태묘의 구성과 예제를 고침, 태묘에 모신 태조 이하 선왕은 고려 왕실과 왕조를 표상함에도 태묘 친향 횟수가 크게 줄었음 2. 국호 의례에서도 상복을 입는 기간이 줄고 예제의 격식도 낮아짐, 대표적으로 최충헌은 자신이 폐위한 명종을 왕례보다 낮은 후비의 예식으로 낮추어 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집권 정당성을 지키고자 함 3. 최충헌은 실권을 장악했으나 왕실의 상징적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였고, 이에 왕실 의례에 개입하여 국왕과 왕실의 권위가 실질이 아닌 형식으로 관념화 되길 바란 것으로 해석됨 4. 이에 의종은 최충헌이 고친 의례를 바로잡고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려 노력, 최충헌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폐위의 절차를 밟음 5. 고종 때 최씨 집정은 자신의 집안 상징례에 왕실의 예제를 참용하여 국왕과 나란히 서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최항 때까지 이어지며 왕실의례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퇴색되는 계기가 됨 V. 맺음말 1. 명종은 재위 초반 왕실 조상에 대한 숭배 의례를 중시하고 태조신앙에 바탕을 둔 의례를 실행하여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 함 2. 최씨의 등장으로 국왕의 권력이 미약해지면서 왕실 의례에 최씨 집정이 개입하고 최씨가 왕실의례를 참용하는 등 그 특수성이 사라지게 되었음 ▶ 김창현, 2007, 「왜 고려 무인 집권자는 새 왕조를 개창하지 않았는가?」 - 최충헌 집권기 회종을 제외하고 신종, 강종, 고종이 순종하여 왕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음 - 몽골의 침략으로 최우가 왕이 될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대몽항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고려 인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는 정통성을 지닌 왕씨 국왕이 적절했기 때문 - 또 최우가 왕이 되었다면 내란이 일어나 두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 - 몽골과의 강화 이후 무인 집권자의 힘이 약해져 연합 정권의 성격이 강했고, 화해를 주도한 국왕의 위상이 상승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고려보다 기록이 풍부한 조선의 왕실의례를 살펴보고 조선에서 왕실의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2. 태조 청동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태조 신앙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view.kakao.com/v/_LaxkKb/EyBSEoBwcs)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III-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무인정권, 그리고 전란 속의 왕권 - 고려 고종(1192-1259) 연구 - , 윤용혁(2009)
무신 정변 고려의 관리는 크게 문신과 무신으로 나뉘었는데, 무신은 정치적·경제적 차별을 받아 왔다.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일부 문신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이의방 등의 무신이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무신 정변, 1170). 무신 정변 이후 국가의 중요한 일은 무신의 회의 기구인 중방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무신 정권 초기에는 무신 사이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어 집권자가 자주 바뀌면서 정권이 불안정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의 수립 불안정했던 무신 정권은 최충현이 집권하며 안정을 찾았다. 최충현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또한 사병 집단인 도방을 확대하여 권력 유지에 활용하였다. 최충현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삼별초를 조직하여 도방과 함께 정권을 보호하는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러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최씨 정권은 4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다.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80-81			◎ 선정이유 → 최씨 정권과 고종과의 관계 궁금 <공통논문> - 새 왕조를 열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인물은 최충현과 최우 정도였음 - 최충현 : 명분이 약했음, 고종이 순종했기에 왕위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음 최 우 : 최산보의 비밀건의 새어나가고 희종과 연결되었음이 밝혀져 역성혁명 추진 어려움, 고종 순종, 대몽항쟁의 구심점 필요 ◎ 내용정리 1. 머리말 - 고려 제23대 임금 고종 프로필 : 고려 임금 중 최장기 재위(46년), 왕의 권위가 위축되었던 시기였고 몽골과의 항쟁 시기 - 고종 대는 무인정권기의 왕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 무인정권이라는 한계 안에서 국왕의 권위 일정하게 유지.ssul / 고종 자신이 왕권의 회복을 위한 일정한 노력과 작업 시도.ssul 등 2. 고종, 왕위에 오르기까지 - 19대 명종의 맏손자로 왕위계승서열 2위였으나 명종의 폐위로 아버지 강종이 태자의 지위에서 강화로 내려짐 그러나 희종의 폐위를 계기로 왕위계승이 가능해졌고 재위기간에 강화도로 천도하여 지냈고 생을 마감함 (고려의 강화도령, 강화임금) - 의종-명종-신종-희종-강종-고종 : 명종 이후의 왕위계승은 최충현에 의해 이루어짐 3. 최씨 집정자와 고종 : 최씨 정권은 국왕의 권위를 자신의 통치에 이용 / 고종은 최씨정권의 정치 권력에 힘입어 국왕의 지위를 보장받음 - 무인정권은 국왕의 폐,립을 자행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국왕의 지위에 오르지 않음 → 국왕의 권위를 권력 유지에 적절히 이용함 → 최씨 집정자와 고종은 상호 정치적 지위 확보에 공동 호혜적 입장이었음(최씨 집정자의 배려와 고종의 답례) - 최씨정권은 대외관계상의 외교적 부담을 국왕(몽골과의 대화 상대로 내세움)에게 분담시킴으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함 - 고종은 최씨집정자의 정책 결정이나 의견에 결코 맞서지 않음 : 국왕의 권위 추락되어있음을 보여줌, 신하들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지 못함 4. 몽고전란과 고종 - 몽고전란 통해 국내 권력구도의 변화(국왕의 입지 신장 등)를 일으킬 수 있었으나 최씨정권의 강화천도가 가능성을 원천 배제함 - 당시 강화천도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며 고종 또한 부정적 입장이었음 - 고종 스스로가 권력구도 변화의 기회를 피하였다고 서술함 - 몽고의 고종입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거부, 태자의 입조로 요구사항이 낮춰졌으나 끝까지 거부하다가 계속되는 상황의 악화로 인해 고종은 태자 입조를 조건으로 하는 철군에 협의함 → 국왕의 입조에 준하는 공식적 항복 표시이자 개경에의 환도를 약속하는 것 5. 고종의 신앙과 가정생활 - 불교 신봉? 국왕에 의한 각종 불교적 신불 행위가 성행함(사사 친행, 불교 의례) ← 고종 시기만의 독특함은 아니나 종교적 열심히 뒷받침O - 전통적 신앙에 근거하여 산천, 하늘의 성신에 제사지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음 - 전란으로 민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가의 운영보단 무인정권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변 안녕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6. 맺음말
생각해볼 점(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한국사	천재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3. 고려의 통치 체계와 국제 질서의 변동	안주영, 「이의방의 집권과 정국 운영」, 『역사교육』, 2020.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다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 등으로 문벌 사회 안팎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신에 비해 승진 및 처우에서 차별을 받아 온 무신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또 하급 군인들은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어 불만이 많았다. 결국 정중부, 이의방 등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많은 문신을 제거하고 왕을 교체하였다(무신 정변, 1170). 이후 무신들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토지와 노비, 사병을 늘려 세력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최고 집권자가 자주 바뀌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60여 년 동안 이어진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은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면서 안정되었다. 이후 최씨가문은 4대 60여 년간 고려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최충헌은 처음에는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이후 국정 운영에 활용하였다. 또한 도방을 개편하여 자신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두어 모든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 무신 집권자의 변천과 지배 기구			이의방 탐구 의도: 무신란은 정중부의 난으로도 불리는 등 정중부의 영향은 컸지만, 정중부는 이의방과 이고에 의해 정변에 참여한 것, 이의방을 정변 주도자로 주목 이의방의 배경: 이의방은 견룡군¹⁾의 장교로서 임금의 신임을 받아 출세할 수 있었음. 의종은 미약한 왕권으로 인해 환관과 친위 세력 형성에 힘썼으나 의종이 문신과 타협하며 무인들이 정치 권력에서 밀려나 의종 18년(1164)에는 모반을 꾀하게 됨. 이의방이 정변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견룡직을 지냈고 능력이 출중했으며, 문신인 형 이준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 1. 이의방 집권기 특징 1) 문신 견제, 무인 우대 2) 강압책: 김보당의 난, 귀법사의 난, 조위총의 난 강경 진압 3) 정권의 불안정성 2. 이의방 세력 확대 배경 1) 친족을 관직에 있게 하고, 유력한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문객 등 자신의 사적기반을 양성하여 세력을 확대 2) 무인을 위한 정책 추진(감무 파견, 지방관에 무인 등용) 3) 군사력 장악 * 궁극적 목표: 정권 독단(예: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납비) 3. 이의방의 피살 1) 딸을 태자비로 들어서 승려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귀법사)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말리는 이준의와 다뤄 세력이 약화됨+ 조위총의 난 2) 중방 정치: 중방 구성원(고위 무인)들이 이의방을 제거하는 데 동조 내지 묵인 - 이의방은 중방 권한을 확대하고 그에 참여하는 식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는데, 이 체제가 잘 유지되려면 중방원 대부분과 우호관계에 있거나 자기 세력의 인원이 많아야 운영에 문제가 없음. 그러나 중방 구성원 중 이의방과 직결되는 인물들은 적고 정중부 관련 인물이 더 많음 4. 이의방의 영향 1) 후대 집정들에게 표본이 됨 2) 국왕 시해의 위험성 인식 3) 무인정권 성립기의 기반 다짐(중방 권한 확대, 중방은 최충헌 집권 이전까지 중요 정치기구로 운영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공통 논문에서 왕조의 개창자인 왕건, 이성계와 무신 집권자를 비교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말선초 수업에서 정도전, 이성계, 이방원, 이인임, 정몽주, 최영 등을 놓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등의 주제를 가볍게 다룬 적이 있는데, 고려 시대로 넓게 잡아서 이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는? 이라는 발문이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신 집권기 신분을 뛰어넘어 지도자가 된 인물들(김준)이 꽤 있는데, 이런 인물에 대해 시간이 된다면 따로 조사해보게 하는 것도 인물 탐구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친위군(親衛軍)·시위군(侍衛軍) 성격을 가진 부대로, 응양군(鷹揚軍)과 함께 2군(二軍)을 이루고, 6위(六衛)보다 상위이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미래엔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고려 무신집권기의 삼국부흥운동 (신안식, 2021.)
무신 정변 고려에서는 문신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어 문신이 군사 지휘권까지 장악하였다. 고려 초부터 무신과 하급 군인들은 문신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온갖 잡역에 시달렸다. 왕위에 오른 의종은 측근 문신 세력과 친위 부대의 무신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두 세력이 대립하였고, 정중부와 이의방 등은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 정변을 일으켰다(1170). 이들은 차별받던 무신들을 이끌고 수많은 문신을 살해한 뒤 의종을 폐위하였다. 무신들은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문신 중 일부는 무신 정권에 저항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권력 다툼이 벌어지며 무신의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의민처럼 천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사료* 무신 정변의 배경 <고려사>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중,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병수박희를 열었다. 한회는 무신들이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하며 시기심을 품었다. 대장군 이소응이 수박희에서 패하자, 한회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응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최씨 무신 정권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장악하였고, 사병 집단인 도방과 삼별초를 군사 기반으로 삼았다. 최씨 무신 정권은 불법적으로 많은 농장을 소유하는 한편, 왕실·문벌 가문과 거둬 혼인하여 정권의 기반을 다졌다. 또 하층민의 봉기를 적극적으로 진압하였다. 이들의 권력은 4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으며, 몽골의 침략 이후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가며 정권을 유지하였다.			■ 왕조를 부정했던 삼국부흥운동 우리 사회에 있는 지역감정 망국론을 돌이켜 보며 이런 형태의 반면교사를 우리 역사에서 알아보자 ■ 삼국부흥운동의 이해 1. 신라 부흥운동 최충헌 정권의 성립, 의종의 시해에 따른 경주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이의민 잔존 세력과 하급 군인층이 합세한 저항 2. 고구려 부흥운동 최충헌 정권의 전횡, 지방관의 폐단, 거란 유종 침입기의 가혹한 역의 동원 등에 따른 재지 세력 중심의 저항 3. 백제 부흥운동 최씨 정권의 쌍봉사원 세력의 구축과 그 과정에 대한 재지 세력의 대응 (쌍봉사원 세력...?은 잘 모르겠으나 최우의 아들 최항이 정권을 잡기전 승려 생활을 하며 쌍봉사의 주지로 있었다고 합니다 ..) → 의미 ① 민족의식의 성장에 대응하는 향토 의식이 발생했다는 지적 ② 무신정권기 저항이 고려를 부정하여 신국가 건설의 의지를 표방하는 단계로 까지 진전되었다. ③ 지방하층민들이 중앙정부와 연결된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는 계급적 충돌의 성격을 보여 후삼국 시대와 같은 삼국유민 단위의 결집력을 갖기는 어려움 > '지역성'을 담보로한 '저항성'보다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왔음. 즉, 중앙의 지역 장악 방식 및 지역 자체의 결합, 갈등 등 관계가 깨짐으로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 ■ 중앙의 지역 인식 경기제, 양경제, 5도제의 다원적 영역 인식은 국도 개경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반면, 서경과 동경 권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왕조를 부정하는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 → 서경과 동경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저항 ① 중앙 관인층 출신의 저항(요청 반란, 김보당, 조위충의 난) ② 재지 세력 중심의 저항 (삼국부흥운동, 대몽항쟁기 고려를 이탈하여 이민족에 투항 등) ■ 지역 자체의 인식 * 집단성 : 저항 세력의 결집과 확산의 중요 요소 / * 배타성 : 지역 혹은 저항 세력 내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해 오히려 저항력을 위축시키기도 함. 1. <u>집단성에 기반한 저항</u> - 저항의 결집과 확산이 높음. 공감대 형성 / 사회경제적 모순을 공유하던 외부세력이 참여하기도 함 * 국지적 집단성(지역사회 내의 결속) : 해당 지역의 현실성과 역사성이 중요 * 광역적 집단성(지역과 지역의 결속력) : 국지적 집단성 외에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가세하여 확대 재생산 - 사례 : 김보당의 난 (무신정권 기 의종복위 시도) / 조위충의 난(반무신정권 기치로 관인층 중심에서 일반민의 저항으로 확대) -> 서경 중심 2. <u>지역적 배타성</u> ① 재지 세력 vs 재지 세력 : 지역 사회의 주도권 쟁탈 - 최충헌 정권 초기 주로 발생 / 중앙에 의한 지방 지배가 강해졌기 때문 - 지역적 특수성 : 외적과 대치 혹은 중앙에 의한 차별 대우 > 동북 양계 지역 ② 재지 세력 vs 민 : 피지배신분층의 저항 - 무신정권 전체 시기 전체 지역에서 등장

무신 정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상 	- 이 경우의 재지세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국가 지배에 앞장선던 자들로 탐관오리 - 배타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내의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거나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함. ■ 부흥운동의 저항성 * 저항성 : 시대적인 모순의 영향, 지역과 지역 및 지역 자체 내의 갈등, 외부적 영향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형태 삼국부흥운동은 고려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의 집단성을 기반으로 했지만, 지역사회의 배타성에 따른 저항의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여타 저항 세력과 크게 구분되지 않음. 지역사회의 지역성과 저항성이 저항을 확산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 지역의 배타성으로 인한 갈등으로 제한적인 면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지역성은 저항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호응 세력을 규합해 저항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저항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내부적 역량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냄 -> 결론 :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 속 지역감정의 교묘한 술책이 숨어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집단성'과 '배타성'을 극복하여 중국에는 '통합성'을 이뤄낸 지난 날을 교훈으로 삼자..!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삼국부흥운동은 정말 고구려 / 백제 / 신라를 다시 세우고 싶었던 걸까? 고려 무신정권을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3.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천	무신정변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쿠데타[반란]와 혁명 사이(신안식, 2021)
<본문> 고려의 관리는 크게 문신과 무신으로 나뉘었는데, 무신은 정치적 · 경제적 차별을 받아 왔다.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일부 문신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이의방 등의 무신이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 그러나 무신 정권 초기에는 무신 사이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어 집권자가 자주 바뀌면서 정권이 불안정하였다. 무신 정권에서는 무신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어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지배층의 수탈도 심해져 농민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무신이 정변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의 무신은 문신보다 지위가 낮았다.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무신은 관직의 승진에 제한이 있었으며, 하층 군인은 온갖 잡역에 시달렸다. 무신에 대한 차별은 의종 때 더욱 심해졌는데, 심지어 의종이 문신과 함께 향락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무신은 이들을 지키는 호위병 역할을 하였다. 어느 날 보현원으로 행차했던 의종은 대장군 이소응 등 무신에게 오병수박회를 시켰다. 이소응은 무신이었지만 나이가 많고 힘이 약해 상대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젊은 문신 한퇴가 이소응의 뺨을 때리며 모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무신의 불만이 폭발하며 정변으로 이어졌다.			▶ 다양한 평가를 받는 무신정권 - 무신정권에 대한 평가는 ‘반란’과 ‘정변’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어떻게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가? ▶ 무신정변 전후 고려사회 - 전 :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 중앙 정부의 권력 다툼, 과도한 세금 및 수탈 → 농민 생활의 어려움(유망→폭동의 위험) - 후 : 고려 사회의 모순과 폐단 지속, 대외적으로는 몽골의 위협 -> 원 간섭기 도래 ▶ 무신정변에 대한 시각 <시선1> 무신정변 세력은 대의를 위해 ‘혁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 이후에 오히려 백성을 수탈했으며 저항하는 백성을 죽였다. 또한 정변 세력이 국왕 및 문신 세력을 학살하고 막대한 개인 재산을 나눠가졌으며 이후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였다. 무신정권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바관하는 국왕 및 문신과 차이가 없으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에 대한 보복일 뿐이다. 따라서 무신정변은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살인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시선2> 정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무신정변의 목적은 부패한 국왕과 문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중앙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지배층의 불법적인 수탈 때문에 토지를 버리고 떠돌기 시작했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문신 세력을 숙청할 수밖에 없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그 전의 문신 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신정권이 100년이나 유지됐고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 잡은 것은 무신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역사의 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참작해야 한다. ▶ 결론 - 역사의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 지배층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반대 세력의 준동은 ‘반란’이 맞지만, 부패한 권력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했을 때는 ‘개혁’ 혹은 ‘혁명’이라 볼 수 있다. - 피비린내 나는 지난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책임이다. 정의롭지 않은 시대 정신은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볼 점(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수업에서 다룬다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무신정변이 ‘반란’인지 ‘혁명’인지 토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자체가 어렵지 않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②」	비상교육	Ⅲ-1-④. 정치 질서가 중요하고 무신정권이 성립하다.	◎ 「무신정변·무신집권의 재조명」 / 오영선 / 역사비평사 / 1995.08 ◎ 「고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박재우 / 고려사학회 / 한국사학보 / 2015.08 ◎ 「무신정변·무신집권의 재조명」 / 오영선 / 역사비평사 / 1995.08 본 논문의 저자는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원인을 무신에 대한 고려 조정의 차별로 보는 등의 단순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무신정변의 원인을 고려의 변혁기에 일어난 조정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다. 무신정변은 의종대 말기 측근문신·내료와 측근무신 사이에서 발생한 권력투쟁적 성격이 강하였고, 후자가 일반 군인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무신정변 진행과정에서 문반과 무반 사이의 대립구도가 나타난 것은 정변참여 세력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모든 모순의 책임을 문신들에게 돌림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무신정변·무신집권의 재조명」 / 오영선 / 역사비평사 / 1995.08
한편, 문벌의 권력 독점과 부패가 계속되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하급 군인은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어 불만이 커졌다. 게다가 일부 문신이 노골적으로 무신을 무시하자 무신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결국 정중부, 이의방 등은 정변을 일으켜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하였다. (무신정변, 1170)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또한 사병 집단인 도방을 확대하여 호위를 강화하였다. 그의 아들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고, 서방을 설치하여 능력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규보와 같은 문신이 등용되었다. 한편, 최우는 야별초를 조직하여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최씨 정권은 4대 6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사회 개혁에 소홀하였고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중학교 역사②」 / 이병인 외 / 비상교육 / 2020. 3. 1. / pp.82-83 참고			1. 머리말 : 무신정권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 왔으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시기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며 연구 또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었다. 2. 무신정변의 배경 : 무신정변은 고려가 12세기 초부터 마주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배층 내부의 갈등에 의한 것이다. 3. 명종대 정치혼란과 농민항쟁의 격화 : 무신정변 이후에도 권력 내부의 갈등은 지속되었으며, 여기에 민란까지 더해지자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체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의 득세를 바랐다. 그리고 그 결과 최충헌을 시작으로 최씨정권이 독재기구 수립과 함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4. 최씨정권과 ‘英公’의 대두 : 최씨정권이 장기간 안정될 수 있었던 기반은 크게 관료세력의 결집, 무력기반의 장악으로 설명될 수 있다. 5. 대몽항쟁과 최씨정권의 붕괴 : 삼별초의 항쟁은 몽고와의 강화 여부를 두고 정권 내부에서 벌어졌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무신세력이 일으킨 반란이었다. 농민들은 고려왕실이 몽고와 결합하자 이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삼별초의 항쟁은 농민항쟁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6. 맺음말 : 안정된 권력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집권무신들은 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강력한 지도력을 표방하며 성립된 최씨 정권은 관료세력을 결집하고 무력기반을 강화하며 국왕과 독립된 권위를 누리며 안정적인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몽침략기에 몽고와의 강화를 주장하는 고려 조정과의 다툼에서 패배한 삼별초는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농민들이 가세함으로써 삼별초의 항쟁은 민족항쟁의 연장이라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
			◎ 「고려 무신정권기 敎定都監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박재우 / 고려사학회 / 한국사학보 / 2015.08 본 논문은 무신정권 시기 교정도감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 전반을 살핀 후 교정도감이 권력기구화 되는 과정과 그 정치적 위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피고 있다. 저자는 교정도감을 무신정권기 고려 국정의 전반을 관리하는 최고기구로 바라보는 기존의 거시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을 지양한다. 무신들이 지닌 권력의 출처는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며, 정규 관직이나 교정도감(교정별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무신정변 이후에도 고려의 국정은 관료제도의 원칙과 체계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무신들은 교정도감을 통해 고려정치에 핵심이 되는 기구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권무신들은 재추회의, 교정도감, 정방 내에 존재하는 관직을 겸하였고 해당 기구의 독자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였다. 교정도감은 ...(중략)... 3성 6부의 관료제도나 정규 관직 그리고 정방, 도방, 서방 등과 서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들을 관할하거나 통솔하지 않았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집권무신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다양한 관직과 기구를 각각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고려 무신정권기 敎定都監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박재우 / 고려사학회 / 한국사학보 / 2015.08 / p.202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모두 무신정변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을 고려 조정의 무신 차별 정책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도감을 바탕으로 한 무신들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고려 사회는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정변의 성격과 전개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무신정변은 고려 조정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며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고려사회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관료주의적 체제와 정치기구의 운영 방식을 존중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신정변의 원인과 성격을 설명할 때, 교육과정의 서술 그대로 ‘고려의 문신우대정책과 무신 차별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 공통논문과 관련하여 수업 때 아이들에게 무신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없었던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1	천재	3-1. 몽골 제국과 문화 교류	고려 충렬왕의 케시크(怯薛, kesig)제 도입과 그 의도 (김보광, 2012)	
칭기즈 칸은 뛰어난 기마병을 바탕으로 하여 대외 원정을 시작하였고, 서하와 중앙아시아 등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칭기즈 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고쳤다. 이후 그는 남송을 멸망시킨 후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에는 실패하였다.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한 원동력 –뛰어난 기동력: 기마병 한 명이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바꾸어 타기 때문에 말의 피로를 줄일 수 있었고, 움직임이 편하고 가벼운 갑옷을 입어 기동력이 뛰어났다. –우수한 무기와 전투력: 기마병에 적합한 작은 활 그리고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사용하였고, 달리는 말 위에서 몸을 완전히 비틀고 화살을 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머리말〉 1. 기존 충렬왕대 정치상황 연구: 고려-몽골관계 형성, 중심세력 정치상 2. 케시크에 대한 개별연구(응방, 비척치 등) –>케시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충렬왕의 케시크에 대한 입장 연구 필요 〈충렬왕 즉위전후의 정치상황〉 1. 무신정권에 의한 국왕의 위상과 권위 손상 2. 임연의 원종폐위와 쿠빌라이의 구제 =>충렬왕 왕권강화 필요성, 몽골의 위세 인지 3. 원종폐위시 재추 등 고위관료의 묵인 =>충렬왕 관료 신뢰, 의지 어렵다는 판단 =>국왕의 편에 서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형성 필요 인지 (기존 내시제는 관료층에서 선발) 4. 고려 內 몽골위세 이용 정치적 안정 꾀하려는 움직임 발생 〈충렬왕대 케시크제의 도입〉 1. 충렬왕대 정치제도 대대적 변화 –관계개편: 중서문하성->첨의부 등 –몽골식제도 등장: 코르치, 응방, 비척치 =>변화의 차이: 강제성, 자발성 =>몽골식제도 등장 = 충렬왕의 자발성 2. 각 제도 역할 –코르치: 국왕의 시위조직 –응방: 매의 사육 및 중계무역을 통한 재정원 마련 –비척치: 재추를 대신해 긴요한 일 의논	〈몽골 제국의 케시크제와 고려의 운영양태〉 1.몽골의 케시크제 –코르치, 응방, 비척치 = 케시크의 일부 –케시크 = 사적인 주종관계 –정식관직 X, 재상과 회의참석, 그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 2.고려의 케시크제 –구성원: 충렬왕과 밀접한 관련자 중심 (몽골 질자 시절 함께 숙위 등) –응방: 충렬왕을 위한 잔치 주취 –케시크 조직의 잦은 비행 = 충렬왕 신뢰 기반 〈케시크제 도입에 담긴 충렬왕의 의도〉 1. 정치상황: 왕권강화 필요, 고위관료의의지X, 몽골영향력 증가 2. 인질 생활 중 케시크 활동 =>황제의 부마도 케시크제 가능 & 정국운영형태 인지 3. 의도: 왕권회복 과정 중 기존조직에 의지하지 못하자 몽골제국에 의지하여 왕권확립 –성립시점 즉위 후 4년 내 :즉위 전부터 준비 –케시크 = 몽골제국의 부마에 속한 것: 고려인 관인 임명시 고려관직자임과 동시에 몽골제국 신하 => 감찰사 간섭 불가능 –무신정권 정방: 사적인 이사권이 국가핵심권한 행사가능 인식 〈맺음말〉 1. 왕권강화 필요 상황: 인질생활 중 경험한 케시크제의 정치력과 부마로서 활용가능한점 인지 2. 몽골의 힘을 빌려 사적 주종관계 형성, 왕권강화 꾀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원간섭기 고려 국왕들의 몽골 인식 2. 수업에서 다룬다면? –쿠빌라이의 즉위와 한국사 연결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한국사	동아출판사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역사 · 한국사 교과서 ‘고려-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제안(이명희, 2021)										
몽골의 침략과 항전 원의 간섭 권문세족의 등장 공민왕의 개혁 신진 사대부의 등장과 개혁			1. 서언 2. ‘고려-몽골 관계’ 부분 교과서 서사 및 서술 검토										
				비상	전재교육	미래엔	지학사	씨마스	금성	동아	리베르	해남에듀	
			공통	1) ‘원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 유지 ① 원의 간섭 : 정동행성 설치 및 내정 간섭, 영토 침탈, 왕실 통혼, 왕실 호칭 및 관제 격하, 공녀·환관·특산물 부담, 왕위의 임의 교체 등 ② 결과 : 새로운 정치세력인 권문세족 등장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집필 기준 - 고려의 대외 항쟁은 침략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의 산물이 아니라, 다원적인 국제 관계에 대응하는 고려의 탄력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서술한다. ① 공민왕이 1356년에 행한 ‘반원적’ 조치들을 나열해 놓은 정도의 서술, 원의 고려에 대한 영향을 ‘간섭’으로 보고 공민왕 대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교과서의 서사를 수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함. ② 고려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를 몽골의 ‘간섭’과 그 극복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교류가 어떤 맥락과 인식 속에서 행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원이 일방적인 ‘간섭’을 행하는 가운데, 다수의 고려 문인들, 승려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몽골로 향하고 그곳에서 교류한 인식론적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몽골과의 전쟁	무신정권 관련	‘원 간섭기’ 관련	‘원 간섭기’ 관련	‘원 간섭기’ 관련	‘원 간섭기’ 관련	무신정권 관련	‘원 간섭기’ 관련	‘원 간섭기’ 관련	‘원 간섭기’ 관련	
			성리학 도입	고려의 사회와 사상	고려의 사회와 사상	고려의 사회와 사상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고려의 사회와 사상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전쟁 이후 양국 관계	원의 간섭과 일원적 국제 질서의 강화 ➡ 원의 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제시	원의 내정 간섭	원의 내정 간섭	원의 내정 간섭			원의 내정 간섭, 권문세족의 등장과 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요소 포함	원의 내정 간섭, 권문세족의 등장과 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요소 포함	‘원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 유지	
			공민왕 대의 개혁	항목명에 ‘반원’이라는 용어 사용 ×	항목명에 ‘반원’이라는 용어 사용 × ➡ <고려의 왕들, 개혁을 단행하다> - 충선왕, 공민왕					항목명에 ‘반원’이라는 용어 사용 ×	항목명에 ‘반원’이라는 용어 사용 ×		항목명에 ‘반원’이라는 용어 사용 ×
			교류상		몽골풍과 고려양 ‘탐구학습’		몽골풍과 고려양 ‘탐구학습’						몽골풍과 고려양 ‘탐구학습’
				유학 공부, 불교 교류, 무역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몽골에 간 고려인들이 있었음을 언급 ➡ ‘자발적 몽골행’의 사례들을 통해 당시의 고려인들에게 몽골, 원의 인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까지 제시 이승휴의 『제왕운기』 가운데 원과의 관계 긍정, 황	유학 공부, 불교 교류, 무역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몽골에 간 고려인들이 있었음을 언급		고려양의 유행을 가능하게 한 주체 - 주로 공녀나 환관과 같이 몽골에 끌려가서 정착하게 된 고려인들					고려양의 유행을 가능하게 한 주체 - 주로 공녀나 환관과 같이 몽골에 끌려가서 정착하게 된 고려인들	

	제의 은혜를 기리는 내용을 담은 부분 vs 고려 말 정몽주가 원과의 관계를 끊고 명과 화친해야 함을 청하면서 그 근거를 든 상소문의 일부 ➡ 원과 명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								
	겉도는 교류상에 대한 나열적 서술 양상은 큰 차이 없이 1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								
'권문세족' 정의	친원적 성향이 강하였고,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	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써 그 지위를 세습한 자들	원과 관계를 맺은 세력 + 문벌 및 무신집권기 등장 가문	◆ 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 + 문벌 후손 및 무신집권기 등장 가문	원의 간섭을 받는 동안 등장한 새로운 지배세력	원의 내정 간섭이 계속되면서 성장한 정치세력	친원적 성향의 정치세력	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 / 친원파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출세한 정치세력
	◆ ‘친원’이라는 것은 고려의 국속과 국가로서의 존립을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 원 중심의 질서를 긍정하는, 혹은 원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의미 ➡ 원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원 제과에 응시하고자 했던 ‘신진사대부’들 역시 그러한 ‘친원적 성향’을 가진 자들. ➡ 원은 일방적인 간섭을 행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그러한 원 중심의 질서를 긍정하는 ‘친원적’ 성향을 가진 자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정적 존재로 그려진 가운데, 마찬가지로 ‘친원적’ 성향을 바탕으로 원과 교류하며 성취를 이루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교과서의 서사는 답을 주지 않는다. ◆ 이종서, 「고려시대사의 연구성과와 교과서 서술 내용 검토」 - 공민왕 대 이전의 상황에서 원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3. ‘고려-몽골 관계’ 관련 교과서 서사의 문제점

- 1) 서사가 그려내는 역사상의 편향성과 역사 이해의 불균형
 - ① 전쟁 이후 원과 고려의 ‘관계’가 아닌 ‘간섭(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의 사례로 제시 - 정동행성 설치(일본 원정 원조 부담) 및 내정 간섭, 영토 침탈(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 왕실 간 통혼, 왕실 호칭 및 관제 격하, 공녀·환관·특산물 부담, 왕위의 임의 교체, 권문세족의 등장
 - ↳ 정동행성의 설치 및 그를 통한 내정 간섭
 -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서 황제국의 정벌전에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제후국이 부담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
 - 원정 계획 철회 이후에도 정동행성이 유지되었던 데에는 고려 국왕 측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작용
 - 정동행성을 통해 원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한 사례는 초기 사례에 한정
 - 정동행성을 원 내지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주장한 이른바 ‘입성론’이 부원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황과 관련
 - ↳ 통혼 - 양 왕실 간에 통혼이 성사된 것은 고려 왕실 측 요청에 따른 것
 - ↳ 관제 격하 - 황제국과 제후국 사이의 국제 질서,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 근거한 것
 - ↳ 왕위의 임의 교체 - 황제의 제후에 대한 책봉 권한 행사를 포함하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 고려 국왕과 신료들의 이해관계도 반영
 - ↳ 공녀와 환관 및 특산품 요구 - 제후국의 황제국에 대한 ‘조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의 ‘관계’에 기반한 것
 - ▶ 당시의 고려인들이 원과의 관계 속에서 당면했던 과제는 단순히 그 ‘간섭’을 받는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원이 중심이 되는 세계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
 - ② 성리학의 도입 - 원에서의 성취를 위해 노력했던 고려인들의 지향이 작용한 결과
- 2) 그러한 역사상 제시가 역사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갖는 부적절성 문제
 - ① 역사적 사고력 함양
 - ② 자기 정체성(민족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 당시 고려와 몽골 간 관계의 구조와 맥락을 드러내고, 그러한 관계와 대상에 대한 고려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을 드러내어 학습자가 과거의 ‘나’인 고려의 관계 대상 몽골의 행위를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 ‘나’의 타자인 고려 시대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교육이 필요.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우리’의 역사를 타자화하여 이해하고, 동시에 그러한 타자화된 역사를 이질적으로 여기는 현재의 관점과 인식을 다시 맥락화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4. ‘고려-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예시 1) 고려-몽골 관계의 구조 ① 국간 간 관계 : 정동행성승상·부마·고려국왕 - 황제국과 제후국으로서의 관계, 속국 관계 ② 개인 간·가문 간 관계 : 정동행성승상·부마·고려국왕 - 고려국왕 및 왕실 구성원과 몽골 황실 공주의 세대를 거듭한 통혼(고려국왕권의 필요에서 시작), 고려국왕 및 왕실 구성원이 세대를 거듭해 몽골 황실의 친위부대인 케식에 참여 ③ 관료제적 관계 : 정동행성승상·부마·고려국왕 - 충렬왕의 요청에 따른 것, 정동행성이 유지됨으로써 고려가 원의 관료제적 질서에 일정부분 편입 2) 통치체제와 정치구조의 변화 ① 통치체제의 변화 - ‘제후국’이었던 고려국가의 위상이 국가 내부의 제도에까지 적용된 결과, 정동행성이 설치된 이후 원 중서성에서는 충렬왕에게 문서를 보낼 때 자식(咨式) 문서를 보내기 시작 ② 정치구조의 변화 - 몽골과의 관계에서 ‘책봉’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책봉 취소’, 즉 몽골 황제가 고려 국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가능 - 고려 왕위를 결정하는 데에 외부적 요소, 즉 황제 및 황실과의 관계라는 요소가 작용하게 되고, 고려국왕위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권한을 몽골 황제가 행사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왕위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짐. - 국왕과 신료의 관계도 변화, 입성론 제기 3) 사회 문화의 변화 - 끌려간 사람,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 사람, 스스로 간 사람 4) 공민왕 대의 개혁 ① 원의 세력 상황 - ‘반원 개혁’을 단행해도 좋을 정도로 약화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고려국왕권 제약 - 다른 권력 주체와 경합을 하면서도 몽골황실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고려국왕의 권력과 권위는 충혜왕 대에 들어와서 고려 여인 기씨가 몽골 황후가 되면서 위협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지원 속에서 왕위에 오른 공민왕 대에 이르러 기씨의 아들이 황태자에 책봉되고 그를 위한 선위 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 ➡ 국왕권의 기반을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축할 필요, 원과의 관계 재편 시도
--	---

-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1.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고려와 몽골의 관계, 친일vs친몽vs부원 / 신진사대부의 성격(특성)? / 공민왕의 개혁이 갖는 의미...(자주 개혁? 부마국 속 체제 변화?) 조공-책봉의 관계 명 vs 몽골
 - 2. 수업에서 다룬다면?
 -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몽골-고려 관계 변화 : 자발적, 자의반 타의반, 타의를 균형적으로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수업 바로 적용은 어려울 듯 하고 좀더 관련 논문이나 서적을 읽고 토론 정리한 후 수업에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정요근,2020)
조선의 건국 고려 말에는 부패한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농민을 수탈하여 사회 모순이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명과 친선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에 나섰다.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과전법을 단행하여 농장을 몰수해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신진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리학을 내세워 불교의 폐해를 비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 왕조를 세우려던 세력은 왕조 교체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 왕조를 세웠다.			1. 머리말 - 한국사학계에서는 왕조의 교체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 인식이 보편화 - ‘정체성론’의 극복 → 왕조의 교체를 한국사의 발전적 성취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 - 신진사대부는 국가 재정의 확충, 중앙 집권체제의 정비, 불교계의 폐단 제거 등 각종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혁 세력이며,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로 인한 각 분야의 난맥상을 극복한 진보세력임. 특히, 급진파 사대부를 역사 발전의 선도 세력으로 인식. -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를 분절적으로 보고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강조 - But, 1392년의 고려-조선 왕조 교체보다는 13세기 후반 고려의 원 복속과 16세기 중반 사람 세력의 등장을 훨씬 더 중요한 단절의 시기로 보아야 함.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를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2. 정치 세력과 주류 사상의 연속성 (1) 정치 세력의 연속성 - 기존 관점 : 권문세족(부패한 기득권 세력) vs 신진사대부(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참신한 개혁 세력, 왕조 개창에 찬성했던 급진파 사대부와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로 나뉨) - 신진파 사대부가 권문세족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치세력인가? ① 조선 왕조의 개창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조선왕조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 ②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는 모두 주자성리학을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정치 노선의 차이는 이념적 차이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2) 주류 사상의 연속성 - 기존 관점 : 조선 왕조의 개창으로 인해 고려의 주류 사상이었던 불교가 유교로 대체됨 - But,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에도 고려의 불교 전통이 오랫동안 강고하게 남아있었다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음. ① 15세기까지 불교가 사회 내에서 견고한 기반 유지. 고려 불교 전통이 조선 초기에도 계승. ② 조선 건국 직후 승려의 사회적 신분 - 승려의 자격 증서인 도첩의 발급 대상을 소수의 상층 양반 자제로 제한, 승려의 군역 의무 제외 이유도 성균관이나 향교의 학생처럼 면제 받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 ③ 불교 서적 활발히 간행, 국가와 왕실이 불교 서적 간행의 주체로 참여 3. 통치 체제와 제도 운영의 연속성 (1) 지방 사회의 편제 - 고려의 주현-속현 제도 붕괴, 수령 중심의 지방 통치 시작은 조선 왕조 개창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원 복속기부터 보편화되었음. - 수령 중심의 지방 통치는 16세기 중반 사람의 집권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방향으로 변화함. ⇒ 조선 개창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 복속기 이래 진행되는 변화와 개편을 공고히 하는 계기에 불과함. (2) 토지 개혁과 노비 정책 - 조선 건국 세력의 토지 개혁과 노비 변정 사업은 대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어하지 못하여 오히려 확대시킴. ① 토지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졌으나 호적 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지 못하여 노비를 이용하여 기존 토지 세습 ② 노비 소유의 세습 원칙, 일천즉천의 원리에 따른 신분 규정 원칙은 유지됨. → 조선 전기는 노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 (3) 사회 경제적 측면 -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기본적인 재정 구조는 모두 공물을 통한 세입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 - 조선 중기 이후 대동법 실시가 본격화 된 이후에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짐.

	4. 대외 관계 추진과 보편문화 수용의 연속성 (1) 대외 관계 - 조선 지식인들의 천하 인식(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의 제후 국가임)은 원 복속기에 형성된 것임. ① 원의 정치적 개입과 주자성리학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 화이 의식을 가지게 됨. 천하의 중심이 원에서 명으로 바뀌었을 뿐임. ② 원-고려 간 관계에서 원 황제의 성지가 고려 권력 구조의 최상위에서 실질적 힘을 발휘 → 조선 초기 명 황제의 성지가 조선 정치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조선의 영토 관념 ① 원 복속기 이래 활발했던 고려와 요동 지역 사이의 밀접한 인적 교류와 왕래 ② 고려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 및 이북 영토의 개척 ⇒ 조선 초기 북방 6진의 설치 (2) 보편문화 수용 - 원 복속기 고려의 지배층은 원의 문물을 보편문화의 기준으로, 조선의 지배층은 원을 계승한 명의 문물을 보편 문화의 기준으로 간주 ① 관복제 ② 역서 5. 맺음말 -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를 한국사의 단절점이자 분기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원 복속기의 유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함. - 조선 왕조의 개창은 원 복속기의 연속과 계승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 제공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한국사	천재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5.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김윤주, 「조선 초기 ‘조선 건국’에 대한 역사 인식의 형성과 추이」, 『사학연구』142, 2021.
유교 국가 조선이 들어서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 등 급진 개혁파 신진 사대부들은 정몽주 등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고 새 왕조를 열었다(1392). 태조 이성계는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 한양을 새 도읍으로 정하였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새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여러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였다. 왕자의 난을 통해 집권한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하였으며,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 양전 사업과 호패법을 실시하여 국가 재정 확충에 힘썼다. 세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정책 연구 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에게 각종 의례와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경연을 중시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였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두었으며 경연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성문법에 바탕을 둔 유교적 통치 체제의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1. 태조 대 외교문서에 반영된 건국의 정당성 - 외교문서에서 고려의 멸망 이유가 기존의 왕실 혈통이 끊겨 정통성이 훼손된 데다 국왕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성계의 경우 위화도 회군 단행의 주역이었음을 강조 - 대명관계의 불안정성: 명에서 온 문건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후사’로 기록되어 있음(부자설) - 정도전이 정말 요동 정벌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저자의 회의적인 입장: 정도전의 군사적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방원 정권의 명분이 정도전 등의 요동 정벌 계획을 부정하는 데서 확보되었다는 점 - 결국 저자는 진도 훈련을 계기로 빚어진 권력 대립 양상이 이방원 등의 종친과 정도전 계열 관료들이 병권을 다투면서 빚어졌고, 그것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음 2. 왕실의 비문 제작과 국왕의 업적 표창 - 새 왕실 위상 높이기 위해 비문 정비 작업이 행해짐 - 태종은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 비문을 지어 집권 정당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신의왕후 후손을 적장자 계통으로 확정짓고자 함 - 역사 서술에 있어 ‘왕자의 난’에 대한 문제: ‘병기(炳幾)¹⁾’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 제기, ‘병기’는 기미도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 교묘하게 꾸며대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²⁾ 세종은 왕자의 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구술)을 역사서에 반영하여 과거사를 보완함. 3. 악장 문학에 담긴 건국의 서사 - 조선 초기 시가 형태의 하나인 악장은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됨. - 태조 대의 정도전, 태종 대의 하륜, 세종 대의 용비어천가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함 4. 실록 편찬과 건국사의 정리 - 조선 건국 이후 첫 번째 고려 역사서: 정도전, 정충 등의 『고려국사』 - 태조실록 편찬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후대의 평가였는데, 이는 당대사를 편찬할 때 권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 - 세종은 『태조실록』을 열람한 후 기존 실록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고려의 역사를 비롯해 태조~태종대의 업적을 직서하고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함 - 『태조실록』을 바탕으로 『용비어천가』를 제작하였고 『고려사』 개수 작업에 임함 ● 요약 1. 건국 초의 불안정한 대명관계 속에서 외교문서의 내용은 건국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에 집중(위화도 회군 의미 제고, 왕실 선대 계보 구체화) 2. 왕실 비문에서 국왕이 개국에 많은 공헌을 했음을 강조(정릉-이성계, 제릉-이방원 강조) 3. 악장은 권력 핵심부의 관료가 집권 명분을 문학적 서사로 풀어내 정치적 목적이 컸으며, 해당 정권 명분 천명+국왕에 대한 충성 맹세 도구 역할 4. 건국 초기 실록 문제-세종은 직서를 위한 편찬 방식에 대해 논의하며 구술사 방식을 동원 5.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통치의 합리성 확보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새로운 왕조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까? (분열된 국가를 통일한 신라, 고려/왕조 교체된 조선과 비교하면?) 2. 내가 왕이라면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3. 세종의 실록 열람은 정당한가? (아무리 세종이라도,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더라도 실록 열람은 옳지 않다/건국 초 상황 고려, 내용 수정 보완을 위해 실록 열람 필요하다)			

1) 현릉 비문의 ‘<1398년> 태종이 병기하시어 <적들을> 섬멸 제거하였다(太宗炳幾殲除)’는 문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당시의 인식은 ‘정도전 등이 어린 서자를 끼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태종이 저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초기 ‘조선 건국’에 대한 역사 인식의 형성과 추이(김윤주, 2021)
고려 말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섰다. 이들은 과전법을 실시하여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았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한 후, 새 왕조를 열었다(1392). (중략)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등을 제거하고 왕위(태종)에 올랐다.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다.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호적 조사, 호패법 실시 등을 통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중략) 조선은 국가 기틀을 다지며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였다.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역대 왕의 통치 기록을 모은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였다. 또한 유교 윤리를 쉽게 설명한 『삼강행실도』와 국가 행사의 의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를 간행하고, 통치의 기본 규범인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1. 서론 1) 조선 초기 건국 세력에게 ‘조선 건국’ 역사적 사실은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2) 당대의 정치세력 관계, 왕실 위상 강화, 대명외교 변화 등 각종 요소가 ‘조선 건국’ 역사 서술에 영향 3) <고려사>, <태조실록> 편찬 이전 건국 사실을 기록한 외교문서, 비문, 악장 등을 통해 조선 초기 역사 인식 파악하고자 함 2. 태조대 외교문서에 반영된 건국의 정당성 : 이성계의 가문, 위화도회군 서술 1) 태조대 불안정한 대명관계 속 외교문서에서는 건국의 정당성 피력 ① 건국 초기 외교문서 ㉠ 고려 말 왕실(우왕, 창왕, 공양왕)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왕조 교체의 정당성 주장 ㉡ 특히, 위화도회군을 주도한 이성계의 역할 강조 ② 불안정한 대명관계 속 외교문서 변화 ㉠ 명은 조선의 요동 공벌 우려, 조선에 대한 압박 ㉡ 조선은 ‘소국이 상국의 국경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명분 강조 ③ 종계변무문제, 표전문제 등 조선에 대한 명의 압박 지속 ④ 양국 정권이 바뀌면서 조선과 명의 관계 전환 3. 왕실의 비문 제작과 국왕의 업적 표창 : 왕실과 국왕의 권위 부각 1) 태조대 환조의 정릉 비문 ㉠ 기존 비문은 고려 관료로서의 삶 서술 ㉡ 새로운 비문은 추증 국왕으로서의 업적 표창, 맹자의 500년 국운 주기를 거론함으로써 건국의 정당성 강조 ㉢ 특히, 이자춘보다는 이성계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고려 말 왜구 방어, 사전 혁파 등) 2) 태종대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 비문 ㉠ 제릉 비문 역시 이성계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가 최영 실각시키고 이색을 대신하게 하여 국가 안정, 이색이 명에 사행갈 때 이방원을 서장관으로 대동) ㉡ 이를 통해 건국의 정당성 강조, 신의왕후 후손을 적장자 계통으로 확정짓고자 함 3) 태종대 태조의 건원릉 비문 : 창업군주로서의 업적 구체화 4) 세종대 태종의 헌릉 비문 : 집권의 타당성 강조 4. 악장 문학에 담긴 건국의 서사 : 새 정권의 명분 천명,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도구 1) 정권 교체 시 정도전, 하륜 등은 악장(조선전기 궁중에서 국가의 공식적 행사 때에 쓰이는 시가) 저술 2) 이는 이후 역사 기록에 영향, 의례에 반영되어 왕실 권위 강화 5. 실록 편찬과 건국사의 정리 1) 외교문서, 비문, 악장 등 기록은 역사서 편찬으로 귀결 2) 태종~세종대 <태조실록> 편찬 ㉠ 건국 초기 정치 권력은 일부 민감한 역사 수정 ㉡ 이행의 사초와 <태조실록>이 다른 점 : 우·창왕과 변안열의 참형을 결정한 사람은 공양왕, 이성계는 변안열 구명 시도 ㉢ <태조실록>의 편찬자 하륜 등은 이성계 미화 ㉣ 세종대 <태조실록> 열람, 미비한 내용 보완 : 빠지는 내용 없이 직서, 편찬 방식에 대한 논의 공론화, 구술사 방식 동원 6. 결론 : 정치 변동에 따라 역사 서술 방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었지만, 약 60여년 간에 걸쳐 형성된 건국의 정당성은 점차 당대인들에게 역사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국가 통치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생각해볼 점(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당시 사람들에게 조선 건국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을까? 아니었다면 조선 왕실을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왜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했나? (오종록, 2007)
①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다 학습 목표 조선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고려 말, 중국 대륙에 새롭게 등장한 명은 고려가 원으로부터 되찾은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으나, 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국정을 장악하였다(위화도 회군, 1388).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과전법을 실시하였다(1391). 이는 고려 말 권문세족에게 토지와 노비가 집중되면서 어려워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과전법의 시행으로 새 왕조 개창에 참여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고려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던 신진 사대부는 정도전 등 새 왕조 개창을 주장하는 세력과 정몽주 등 고려 왕조를 유지 하려는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후 이성계는 자신을 지지하던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한양 천도와 도성 건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하는 ‘민본’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국왕이 왕도 정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1394).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하였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유리하였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양의 주요 건축물 이름을 정하고, 여러 제도와 의례를 마련하여 유교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도읍의 의미, 천도의 의미 1) 현재 수도의 의미 - 600년 넘게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유지한 것 등을 근거로 ‘관습 헌법’에 의해 수도를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음 (노무현 정부) - 관습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수도 이전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을 보아 현대 사회에서도 수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옛날 수도의 의미 - 도읍 : 국왕과 왕족을 비롯하여 가장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간 - 고대사회 : 왕족과 귀족이 신성한 존재로 도읍 또한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음 - 중세사회 : 신성한 권위는 약화되었으나 ‘풍수지리’와 ‘도참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 명성을 유지 / 고려 건국 시 경주가 쇠하고 송악(개성)에 권위를 부여 →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특별한 조건을 갖춘 곳은 땅의 기운이 왕실과 국가에 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으로 하여금 도읍의 권위를 보장 ■ 개성을 떠나야 했던 까닭 1) 무혈의 역성혁명으로 포장된 이성계의 조선 건국 - 고려의 국새를 넘겨받아 새 임금으로 즉위하는 절차를 밟음 - 태조 이성계의 즉위 교서에 고려의 법과 제도를 계승한다고 밝힘 - 그러나. 이미 권력을 잡은 이성계 일파가 과전법을 실시한 것은 이미 조선왕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줌. 2) 천도의 중요성 - 조선 건국에 있어 법과 제도의 개혁 정도는 건국 주도 세력과 기존 지배층 사이의 줄다리기로 권문세족의 결사항전이 있을 경우 새 왕조 개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토지제도의 개혁에서 마무리 됨 - 천도 역시 권문세족의 기득권 상실로 직결되는 문제이자 건국 세력에게는 고려에 충성하는 세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3) 역성혁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국왕으로서 태조의 권위에 대한 바탕이 부족한 편 - 함경도 출신으로 무공을 세워 백성들에게는 신뢰를 받았을지 모르나 화려한 전통의 권문세족, 관료들이 있는 개성에서 권위를 세우기는 불가능 ■ 한양이 새 수도가 되기까지의 곡절 1) 개성의 쇠락 - 조선 건국 전부터 고려의 국운이 다했고 도읍으로서의 개성의 힘이 소진했다는 참언이 퍼짐 / 개성의 소나무에 벌레가 퍼치고 왕실의 사당에도 벌레가 생김 - 이는 인위적인 공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백성들의 눈으로 새왕조가 하늘의 뜻을 설득하려는 것 2) 한양의 역사 - 백제의 옛 도읍 > 고구려의 부도(副都) > 신라 변방 취급 > 고려 남경 3) 건국 초 정치 주도 세력의 반대 - 정치 주도 세력은 신진 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관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구세력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함. - 한양이 건물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 천도 실패 - 계룡산 일대를 살피 궁궐 공사에 착수 > 남쪽에 치우쳐져 북부 지역과 교통이 불편하다 하여 반대 = 천도 실패 - 태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탐색 > 1394년 8월 무악 지역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 한양의 고려 옛 행궁에 머물며 풍수전문가와 재상들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함(반드시 천도를 해야한다면 이곳이 좋다) ■ 한양으로 천도해야 했던 이유 1) 당시 서운관 관원 (풍수 전문가들) : 한양이 개성 다음으로 좋다. = 개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이 보임 - 태조의 반박 : 개성 역시 부족한 점이 있다. 한양은 조운이 잘 통하고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나라 일을 보기에 편하여 왕도로 삼을만 하다. - 이후에도 개경을 중시하는 인식은 초기 지도에서도 반영됨. 서울이 조선이 된 뒤 200년 이상이 지나서야 대표적인 길지로서의 권위가 부여됨. 2) 풍수지리의 영향력 - 대체로 도읍의 후보지들은 풍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길지, 이는 풍수 지리의 효용성이 떨어졌음에도 백성들의 정서가 명당이라야 도읍으로서의 권위를 지닌다고 생각. - 태조의 주장은 이러한 풍수지리적 이유가 아닌 “국가 통치에 가장 유리한 곳”을 도읍으로 설정한다는 것. 이는 당시 성리학자들의 생각과 같다. - 이후 추가적으로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이유 / 하삼도(전라, 경상, 충청)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도읍의 입지 조건에 영향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우리가 당연하게 수도로 생각하는 서울, 조선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이성계는 쉽게 도읍을 옮길 수 있었을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IV.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1) 조선이 성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김운주, 2015, 「조선 초기 上王의 정치적 위상」, 『이화사학연구』 50, 201-233쪽.	
1.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한양으로 천도 2.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등을 제거하고 왕위(태종)에 오름 ▶ 이방원은 반란을 일으켜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 이복동생인 이방번을 살해한 후 친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옹립하고 실권을 장악(1차 왕자의 난, 1398) ▶ 정종 즉위 후 이방관은 이방원의 세력 확대에 불만을 품고 박포와 난을 일으켰으나,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함(2차 왕자의 난, 1400) 3.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여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 군사권 장악 4. 세종은 태종 때 이론 인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I. 머리말 1. 왕조 사회에서 국왕이 한 명이라는 점은 절대적, 조선 태상왕-상왕-왕이 공존했던 때는 태종 즉위 이후 태조 사망 전까지 8년, 세종 즉위 후 정종 사후까지 약 1년, (태)상왕이 되었던 국왕은 태조, 정종, 태종, 단종, 세조, 고종 2. 실질적으로 상왕으로서 지위를 누린 것은 태조, 정종, 태종으로 3대 연속으로 전위를 통한 승계나 일어난 것은 ‘왕자의 난’이나 ‘세자 폐립 사건’과 관련 3. 상왕 태종의 권력은 막강하여 대개 양상통지 혹은 양왕체제의 이원적 정치 운영 구조 형태, 상왕 태종은 정치 세력 견제 및 제거, 친인척 통제와 관리 II. 조선 초기의 왕위 계승과 선양(禪讓)의 정치적 의미 1. 전통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중법에 따른 적장자 계승과 중국 요순시대에 기원하는 선양의 형태, 선양은 유가와 묵가에서 이상적으로 평가, 법가는 폭력에 의한 찬탈로 비판 2. 상왕 태종은 전위를 넘지시 요순의 선양에 대입하는 모습이 자주 보임 3. 태조는 재위 7년 만에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 전위, 이때 선양의 논리는 정치적으로 폐 유효, 이방원은 적장자 계승 논리도 연계하여 명분을 내세움 4. 태조의 내선으로 즉위한 정종도 오래 재위하지 못하였으며, 정국은 이방원이 주도, 결국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은 자신의 세자 책봉을 성사시키고 곧이어 수선 5. 집권 후 왕권 강화에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정치파동이 이어짐,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은 일찍부터 전위를 표명(태종 6년, 태종 9년), 이러한 전위 의사는 관철되지 않았으나 태종이 신하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음 6. 태종은 전위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병권이나 인사권은 넘겨주지 않을 점을 분명히 밝히며 실권을 장악한 상왕이 되겠다는 뜻을 비침 7. 이때 태종은 정난의 변이나 왕자의 난 모두 병권 장악과 연관된 사건으로 인식, 태종은 자신의 권력에 자신이 있었으나 왕자의 난과 같은 변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왕위 계승을 하고자 함 8. 태종은 재위 18년에 이르러 전위 결행 양념이 아닌 중념을 세자위에 세우며 ‘택현’의 명분을 내세움. 이것이 선양 논리에 더 가깝다고 여김, 이후 세자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 이 과정에서 상왕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왕의 정치적 위상 확립	III. 상왕과 왕의 정치적 관계와 ‘효제(孝悌)’ 윤리의 개입 1. 조선 초기 태상왕-상왕-왕의 관계에는 권력관계의 변수와 가족 윤리의 당위성이 혼재, 그들 사이에는 충(忠)과 효제(孝悌)의 도리가 중첩된 셈, 권근은 효가 우선이라 주장, 국왕이 상왕을 극진히 모셔 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봄 2. 상왕과 왕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들의 관계를 효제로 설명함, 부자, 형제의 의리로써 상왕과 왕이 우호적 관계가 되기를 기원 3. 태조는 내선 후 새로운 권력구조에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과 사위를 잃은 슬픔을 감추지 않았으며, 정종의 개경 환도 결정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냄 4. 태상왕이 된 후에도 한양 환도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주장을 내세웠음, 태종도 한양 환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며 태상왕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감 5. 태종 6년(1406)에 발생한 불교 교단 정리사업에도 불사를 다니던 태상왕의 입장을 고려, 특히 태조의 왕사인 무학이 주지로 있던 회암사는 교단 정리사업에서 제외 6. 이처럼 태종은 효성스러운 군주의 모습을 만들어 취약했던 정치적 명분을 확보 7. 한편 태종은 태조 사후 자신이 상왕이 되는 상황을 예견해보며 “문헌통고”에서 선위하는 예를 살펴봄, 중국의 선례를 통해 선위의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보임 8. 태종은 이미 세자인 시절부터 상왕을 위한 입부를 주도하였으며 세종대에는 자신이 상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와 의례를 정비, 국왕을 위주로 하는 의례에도 노상왕과 상왕을 포함하여 절차 진행 9. 태종은 세종 즉위한 날 군사(軍事)와 주요 사안의 처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 태종은 ‘주상을 위하여’, 세종도 수긍하며 ‘상왕을 따르는 것이 효’라 하였음 10. 실제 병조참판 강상인이 병조 소관 업무를 상왕에게 알리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하였다가 불충으로 처벌되었으며 나이가 세종의 장인인 심온도 연루되어 결국 자진하고 관련 인물들이 숙청됨, 이는 외척에 대한 경계로도 연결된 것 11. 이외에도 대마도 정벌, 관제나 인사 개편, 형벌 등에 깊숙이 관여, 민생에도 관심, 따라서 상왕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여 각지에 이궁을 건설 12. 세종도 상왕의 정치적 위상에 순응하며 효를 다하는 현군의 입지를 다짐 IV. 맺음말 1. 태종은 자신이 그리던 상왕의 모습을 구현하여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이루어냄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태종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태종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미지 만들기에 능숙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음. 2. 태종의 생각을 보며 흥무제나 태조 등이 의지대로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흥무제가 변왕의 병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태조가 왕자들에게 병권을 주었던 것이 원인이라 인식)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미래엔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박현모, 2021,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 - ’백년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2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pp.50~pp.65
국가 기틀의 확립 세종은 태종 때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집현전을 설치하고 우수한 학자들을 키웠으며,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 조선 시대에는 국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시범으로 보일 만큼 농업을 중시하였다. 농사를 지을 때 강수량과 일조량이 그 해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므로,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천문학이 매우 중시되었다. 그 결과 혼천의, 간의, 앙부일구가 만들어지고, 물시계인 자격루도 제작되었다.			Ⅰ. 도입 - 세종시대를 ‘태평시대’라고 보고 있지만, 세종시대는 오랜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낯선 외래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격변의 시기 - 태종시대에는 대외적으로 제후국으로 국가 위상을 자리매김하되, 대내적으로 정치제도와 법률의 수립, 한양 재천도와 도성 정비에 집중 - 세종시대에는 본격적인 ‘조선인 만들기’의 성과가 나타남 “내가 고려에 마음을 바친 것처럼, 너는 네 조선의 군주를 섬겨야 한다.” (길재) Ⅱ. 건국기 조선의 정치비전, ‘유교왕정의 구현’ 1.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① 조선 왕조의 비전은 ‘유교왕정’의 구현 → 대외적으로 제후국으로 자리매김 → 나라 정체성의 측면에서 주자성리학보다 유교가 지배적 Ⅲ.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① : 주자가례식 예법 도입 1. 주자가례식 예법 도입 - 실질적으로 성리학이 도입되어 사회 질서로 반영되었던 것은 17~18세기에 들어서야 가능. 아직은 유학이 국정 원리 - 그럼에도 국상의제에 주자가례를 도입한 것은 ① 당시 ‘주자가례’가 가장 앞서 있었던 글로벌 매너라고 여김 ② 고려 때부터 지배적으로 행해지던 불교식 장례를 대체 - 백성들의 예법 중에서 사례(四禮)를 바꾸고자 함 예) 혼례 풍속의 변화 → 1434년 왕가는 물론 사대부가에서 친영의 예를 시행 → 그러나 여전히 구습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음 -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를 실감하는 계기가 됨 Ⅳ.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② : 삼강행실도 프로젝트 1. ‘삼강행실도’를 통한 백성 생각 바꾸기 의도 1) 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발상 (독서 기반 스토리텔링 학습법 제안) - 성종, 중종, 선조, 광해군, 영조 대에 다양한 판본으로 간행 - ‘삼강행실도’는 조선에서 가장 많이 찍히고 읽힌 책으로 사람들의 윤리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함 2) 훈민정음 창제의 계기가 되어 백성들의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침 -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삼강행실도’를 보급했음에도 알려지지 않음 - 문자 제작 이후 왕실과 양반가의 여성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 Ⅴ.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③ : 사대부의 나라 1. 주요 국정사안을 공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도화 - 재조(在朝) 차원의 토의와 검증 (어진회의, 다양한 형식의 정치비평, 철저한 인사검증, 백관의 논핵, 재상에게 회의 주관, 언관 면책특권) - 관학 및 향촌 유생들의 상소·권당 같은 의견표출 - 경연 활성화 → 특히 세종은 경연을 ‘국정토론의 중심지’로 만들.

	2. 국왕의 재량권 고심 - 고려시대 왕의 권한이 너무 적어서 권신들에게 휘돌리고 국정 효율이 떨어졌던 것을 경험 - 의정부 서사제의 복원 3. 유교적 관료체계가 재정비되면서 지방에서도 사대부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짐 - 공론이 정치적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재상과 대간의 힘이 커짐 - 속현의 수가 줄어들고, 지방에 수령 파견되는 수가 많아지면서 사대부 입장에서 볼 때 벼슬자리가 늘어남 - 수령고소금지법 등이 제정되면서 고을의 부민에 대한 지방관의 재량권 크게 향상, 지방관의 권한이 더욱 커짐 VI.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④ : 천문역법 프로젝트 1. 왕조의 정당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 -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국왕이 하늘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틀린 시간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 2. 동아시아 천하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치를 자리매김 하는 것 - 천자의 국가도 아닌데도 관상수시(觀象授時)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에도, 천문역법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조선의 정체성 정립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 일차적으로는 조선이 비록 제후국이지만 문명적으로 결코 중국에 뒤처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자부심의 발로. - 음악, 천문역법에서 드러나며, 풍토부동론(風土不動論)에 따라 농사직설을 짓기도 함. 3. ‘자주적’, ‘근대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매우 실용적인 자세 4. 경천근민(敬天勤民)의 차원 - 나라의 근본인 백성에게 바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그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행위 - 고급정보를 백성들과 공유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국격을 높이려는 세종과 그 시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세종 시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로 끝나거나, 거의 애민정신에서 수업이 마무리되는 듯 하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수업에 도입하면 보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해가 갈 것 같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Ⅳ-1.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Ⅳ-2.사림의 성장과 문화 발달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 - ‘백년 프로젝트’ 연구보고서2 박현모(20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종은 태종이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학문과 정책 연구를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고, 왕과 신하가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을 자주열었다. 또한 재상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109 -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두었으며, 특수 행정 구역이던 향·부곡·소를 군현으로 승격하였다. 대부분의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었고,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하였다. -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 110 - 조선의 교육은 유교 이념을 확산시키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성의 4부 학당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소학』과 사서 등 유교 경전을 가르쳤으며, 성균관은 최고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111 - 훈민정음은 백성에게 나라의 정책을 알리거나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정부는 훈민정음을 이용해 백성에게 내리는 교서를 작성하고, 『삼강행실도』, 『소학』 등의 윤리서도 편찬하였다. -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120 - 세종 때에는 훈천의와 간의를 제작하여 천체 운행을 관측하였다. 특히 세종은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여러 사람이 오가는 길에 설치하여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이슬람의 역법을 참고하여 한성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측우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하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122 -			1. 도입 - 연구보고서 1 [“백 년간의 프로젝트(1351- 1450): 고려인은 어떻게 조선인이 되었나?”의 문제의식 및 태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을 소개] - 문제의식 : 공민왕의 즉위 무렵부터 시작된 유교적인 나라 만들기가 태종과 세종에 의해 본격화 되었으며, 세종이 사망할 즈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연구가설에서 출발 - 세종시대를 ‘국민 대개조과정’(조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집중 검토함 - 고려 충신들이 자신의 자손에게 ‘조선사람’으로 살라고 말했던 예시들을 나열하며 이들을 설득한 방법, 조선의 정체성을 풀어나가는 것이 목적 2. 건국기 조선의 정치비전, ‘유교왕정의 구현’ -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유교왕정의 구현-태조의 ‘즉위교서’(유교적 질서 17가지 조목 열거)와 <조선경국전>에서 발견 - 유교왕정의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공유하였는가? : 고려 충신이나 백성들은 유교질서의 열거나 선포만으로 고려보다 조선이 더 나은 나라라고 인정해주진 않음 세종 시대가 되어서야 백성이 나라의 근본으로 안착되고 왕 다운 국왕이 선정을 지속시켜 가는 비전이 구현됨 3.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① 주자가례식 예법 도입 -세종 때의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로 간주해서는 안 됨/ 유교와 성리학을 구분함 - ‘주자가례’ 등 성리학의 예법을 건국 초의 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함 ↳ why? 가장 앞서 있었던 글로벌 매너, 고려 말 심해지는 사회적·종교적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로서 유용 - 주자가례(성리학)를 이용한 제도 : 종묘과 사직단 정비, 수령고소금지법, 국가의례 및 사대부가의 예제 정비, 혼례(친영례)·장례 등 사례를 재정비 4.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② 삼강행실도3) 프로젝트 - 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함 : 사람들의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 훈민정음 창제의 계기, 이는 백성들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침 :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니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4) 5.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③ 사대부의 나라 -조정에서의 ‘조선다움’의 특징(=고려보다 좋은 나라임을 느끼게 한 요인) - 사대부들은 공론정치의 주체로서 주요 국정사안을 결정할 때 큰 영향력 행사 : 재조 차원(회의 및 언론삼사,경연5), 재야 차원(관학,향촌 유생의 상소) - 적절한 국왕의 재량권을 통해 권신의 등장 견제 : 의정부서사제 복원(‘군신공치’ 이념) - 중앙집권적 관료체계가 정비되면서 사대부들은 더 많은 관직에서 더 큰 재량권 행사 가능 : 속현X, 수령육기법6) 시행, 수령고소금지법 제정 6. 세종의 ‘조선인 만들기’ 노력④ 천문역법 프로젝트 ★★★★★ -자연환경을 잘 이해한 후 지식 및 정보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최대한 활용하게 함 - 24년 간 추진된 국가적 과업 : 국왕이 ‘하늘을 살펴 백성에게 때를 알려주는’ 관상수시 프로젝트 추진 ↳ why? 왕조의 정당성 제고 동아시아 천하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일 : 제후국이나 중국에게 문명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라는 자부심 표현 경천근민(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봄) 사명 : 나라의 근본인 백성에게 바른 시간을 알려줌 = 그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백성의 수준을 끌어올려 국격을 높이려는 것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지 못함) 7. 맺는말 - 4가지 노력들이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지도자의 비전 공감 리더십이 중요함 ↳ 지식경영 리더십 : 세종은 과거 사례를 집대성하여 문제해결의 성공조건과 실패원인을 분석한 후 대책을 수립함 ↳ 인재경영 리더십 : 유교왕정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고 고려 충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판단함 (태종 : 정적을 등용, 추송, 인정 / 세종:부왕에 의해 길러진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경청함)

	- 미처 다루지 못한 점들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보고서 내용 예고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조선 초기, 조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고려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인식했을까?’란 질문 던져보기	
2. 조선 전기 문화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조선 정부가 유교 문화를 보급하려고 한 배경 과 노력 설명하기 (성취기준이자 평가기준)	

3) 우리나라와 중국 서적에서 삼강(군신,부자,부부)에 모범이 될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110명 뽑아서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시와 찬을 덧붙임 (총 330 사례)
4) 대다수 평민과 노비의 경우 세종의 기대와 달리, 언문도 문맹이라 문자생활에서는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다 함
5) 세종은 경연을 매월 5회 이상 개최(재위기간 총 1898회)
6)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Ⅵ-2.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이 성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박현모(여주대 교수), 2019, 「세종시대 지식인들의 고려 정치 인식 : 〈치평요람〉 편찬자들의 고려 후기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제20권 2호 / 2021. 9. 20. / pp.77-104에서 재인용																													
세종은 태종 때 이룬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에 힘쓰도록 하였다. 태종이 축소한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였다. 또한 토지에 매긴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였다. 소리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하였다. 「중학교 역사②」 / 비상교과서 / 이병인 외 / 2020. 3. 1. / p.116 조선 정부는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윤리와 실용 지식을 보급하였다. 왕실의 업적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를 지었으며, 유교 윤리서, 병서, 농서와 같은 각종 기술 서적 등을 훈민정음으로 간행하였다. 하급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였다. 「중학교 역사②」 / 비상교과서 / 이병인 외 / 2020. 3. 1. / p.129			Ⅰ. 머리말 1. 세종정부에서 고려는 패망할 수 밖에 없는 나라로 인식되어야 했음. 2. 그러나 맹사성, 황희 등의 핵심인물은 공민왕 이후의 고려 정치를 직접 목격함. 3. 이에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은 고려 정치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치평요람」을 저술함. 4. 이렇듯 「치평요람」은 분명한 정치적 논조를 갖고 집필된 책이며, 고려를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꼭두각시 국왕이나 흑적정사, 사대와 배신 등의 이야기를 대거 수록함. Ⅱ. 「치평요람」에 기록된 고려 관련 기사 1. 「치평요람」에 근거할 때 고려시대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음. <table><tr><th>구분</th><th>주요 사건</th><th>치평요람 기사</th></tr><tr><td>국가기반 정립기 (918-1170)</td><td>왕건의 건국, 문종의 안정화, 성종의 위기극복, 예종의 문치</td><td>240건</td></tr><tr><td>무신집권기(1170-1258)</td><td>왕과 문신들의 안이한 국정운영, 무신혁명, 최우의 혁신적 인재경영</td><td>104건</td></tr><tr><td>원간섭기(1260-1351)</td><td>원 세조 쿠빌라이 이야기, 고려 정치의 자주성 훼손</td><td>231건</td></tr><tr><td>개혁정치기(1351-1374)</td><td>공민왕의 반원운동, 홍건적 침입, 신돈의 개혁과 좌절</td><td>118건</td></tr><tr><td>왕조쇠퇴기(1374-1392)</td><td>우왕의 혼란과 무질서, 국가안보 위기</td><td>204건</td></tr></table> 2. 태조 왕건을 출중한 무예를 발휘한 무장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서술함. 이처럼 세종시대의 지식인들은 무력적 영웅의 가치보다는 국가적 난제를 헤쳐 나가는 유교적 지도자를 더 높이 평가함. 3. 같은 맥락에서 본서를 집필한 학자들은 당 태종에 대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 경세제민의 성군으로서 평가함. 4. 이러한 모습은 이후 용비어천가에서 당 태종과 조선 태종의 이미지를 교차시켜 이방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드러남. Ⅲ. 국가기반 정립기~무신정권기의 리더십 이슈들 1.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이 가장 중시한 왕은 세종과 업적의 성격이 유사한 16대 예종임. <table><tr><th>조선 세종</th><th>고려 예종</th></tr><tr><td>성균관 부흥 정책</td><td>국학 7재</td></tr><tr><td>4군 6진 개척</td><td>여진 평정 및 6성 설치</td></tr><tr><td colspan="2">경로의 정치를 펼쳤으며 예악을 혁신하고 토론 정치를 즐김</td></tr><tr><td colspan="2">그러나 예종은 세종과 달리 인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점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세종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왕으로 서술.</td></tr></table>	구분	주요 사건	치평요람 기사	국가기반 정립기 (918-1170)	왕건의 건국, 문종의 안정화, 성종의 위기극복, 예종의 문치	240건	무신집권기(1170-1258)	왕과 문신들의 안이한 국정운영, 무신혁명, 최우의 혁신적 인재경영	104건	원간섭기(1260-1351)	원 세조 쿠빌라이 이야기, 고려 정치의 자주성 훼손	231건	개혁정치기(1351-1374)	공민왕의 반원운동, 홍건적 침입, 신돈의 개혁과 좌절	118건	왕조쇠퇴기(1374-1392)	우왕의 혼란과 무질서, 국가안보 위기	204건	조선 세종	고려 예종	성균관 부흥 정책	국학 7재	4군 6진 개척	여진 평정 및 6성 설치	경로의 정치를 펼쳤으며 예악을 혁신하고 토론 정치를 즐김		그러나 예종은 세종과 달리 인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점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세종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왕으로 서술.		2. 「치평요람」에는 무신정권이 항몽 과정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서술하고 있음. 특히 양민과 천민 등 나라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 계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외적에 맞서 싸우게 한 배경에 최씨 무신정권의 열린 인사정책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3. 이를 바탕으로 집권층이 문신인지, 무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결속력을 도모하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Ⅳ. 원 간섭기~공민왕 시대의 고려 정치 1. 편찬자는 원 간섭기의 고려정치에 대해 ‘관 위에 구슬을 달아놓은 형국’으로 표현하고 있음. 2. 공민왕 시기의 기사는 총 117건으로 고려의 단일 왕 기사로 제일 많음. 3. 공민왕에 대해 ‘시기심이 많은 군주였으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경청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임금이었다’고 평가. 4. 그러나 말년에는 소인배들과 의논하고 군자들과는 의논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은 공민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해 후대 왕들에게 감계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함. Ⅴ. 맺음말 1.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은 고려왕조와 다른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고려보다 조선이 더 정당성을 갖춘 국가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무신정권기와 원 간섭기 이후의 고려 정치 문제점을 다양한 이야기로 폭로함. 2. 또한 여말 고려 패망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서술하여, 조선 건국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줌. 3.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성리학적 지식인들에게 설득하고자 함. 그리고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왕조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함. 4. 그러나 고려 왕조의 한계가 곧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 나아가 조선이 고려보다 훨씬 좋은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작된 것이 「용비어천가」임. 5. 결론적으로 「치평요람」에서 「용비어천가」로 넘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고려 출신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으며 후대에 좋은 평가를 남김.
			구분	주요 사건	치평요람 기사																											
			국가기반 정립기 (918-1170)	왕건의 건국, 문종의 안정화, 성종의 위기극복, 예종의 문치	240건																											
			무신집권기(1170-1258)	왕과 문신들의 안이한 국정운영, 무신혁명, 최우의 혁신적 인재경영	104건																											
원간섭기(1260-1351)	원 세조 쿠빌라이 이야기, 고려 정치의 자주성 훼손	231건																														
개혁정치기(1351-1374)	공민왕의 반원운동, 홍건적 침입, 신돈의 개혁과 좌절	118건																														
왕조쇠퇴기(1374-1392)	우왕의 혼란과 무질서, 국가안보 위기	204건																														
조선 세종	고려 예종																															
성균관 부흥 정책	국학 7재																															
4군 6진 개척	여진 평정 및 6성 설치																															
경로의 정치를 펼쳤으며 예악을 혁신하고 토론 정치를 즐김																																
그러나 예종은 세종과 달리 인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점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세종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왕으로 서술.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① 「치평요람」의 집필 배경과 목적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함으로서 조선 왕실이 고려 왕실의 잔재를 지우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설명식 수업의 경우에는 「치평요람」의 집필가들이 조선의 세종과 고려의 예종을 유사한 군주로 묘사한 점에 착안하여 고려 예종과의 비교학습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③ 「치평요람」의 원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꼭 한번 해색본으로라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려 출신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고려 왕실에 대한 향수를 지우고자 했던 세종 정부의 자격지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되어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한국사	동아출판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박평식, 2020, 「조선 전기 상업사의 이해 시각」, 『역사교육연구회』 257 - 278pp.	
동아 출판사에는.... 16세기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없어요.. 왜일까요...			I. 머리말 1. 조선 왕조는 유교 국가이자 농업사회 - 경제 정책에서 ‘農本’과 ‘抑末’의 이념 천명, ‘중농’과 ‘억상’의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 2. 15-16세기는 한국의 전근대 역사에서 상업이 국내외 교역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침체하였던 시기로 일반적으로 인식됨 3. 15~16세기 세계사 차원에서 ‘상업의 시대’, ‘교역의 시대’ - 조선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이를 거부하면서, 2세기 동안 내내 상공업의 존재나 그 성장을 부정하고 억압? 4. 고려와 조선 후기를 매개하는 조선 상업사를 그 실체에 근거해 재조명하겠다. II. 15세기 초, 농업 국가의 지향과 상업의 재편성 1. 고려 최말기, ① 특권 세력은 국내외 상업에 대한 투자와 독점을 통해 사적 경제 기반 확대 → 국내 상업에서는 이들의 시전(市廛) 침탈과 강제 교역에 대한 저항이 철시 투쟁 등의 형태로 표출 ② 금·은의 대외 유출과 국가 재정 고갈, 사치 풍조 만연, 인상으로 대표되는 주요 수출품의 강제 조달 → 소상인 소농민층의 침학과 몰락 2. 조선 건국의 주역들 - ‘務本抑末’과 ‘利權在上’을 국가의 상업 정책과 상업구조 재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움 ① 무본억말 - 상업에 대한 국가의 ‘억압’이나 ‘금지’ 정책이 아니라, 상업을 국가가 장악하여 이를 ‘관장’, ‘통제’함으로써 농업의 위축과 농업 인구의 감소를 막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 ② 이권재상 - 상업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최종 최고의 권한이 국가와 군주에 귀속 3. 이 같은 조선 정부의 상업 인식과 정책 구상에 따라 1) 국내 ① 도성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관허 상업으로서 시전 설치 ② 지방 상업에 대한 대책은 행상에 대한 영업 허가증으로서 행장(行狀) 발급과 상세 징수 방식으로 전개 ③ 15세기 초, 화폐 정책 ‘貨權在上’ - 화폐 운용의 권한을 국가·군주가 독점 장악,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국가 경제 전반을 관할 → 태종 조에 두 차례에 걸쳐 지폐인 ‘저화(楮貨)’ 보급 시도 but 실패, 세종 조에는 저화(고액), ‘조선통보’(소액)를 발행해 민간 교환 경제 전체를 통할하려 했으나 실패 ④ 세종 조 후반 이후 면포(綿布)가 이들 상포를 대체 - 그 배경에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상권을 수호하고 자산 변동을 초래할 국폐 발행을 저지하고 있던 민간 교환 경제와 상인층이 자	5. 대외무역 1) 국가 통제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대중국·대일본 무역에서 사무역의 비중이 증대, 활발 2) 使行을 이용한 사무역의 주도층이 국초의 역관층에서 경상과 개성 상인 출신 부상대고(富商大賈)들로 바뀜 IV. 16세기, 상업의 발달과 새로운 상업 인식의 등장 1. 상업의 발달 1) 연산군 대를 거치하면서 확대되고 있던 방납, 대납의 실태는 특히 국왕의 사치와 향락 실태와 맞물리면서 더욱 일반화, 왕실과 국가 수요의 각종 부세와 공물을 도성과 경강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 - 대동법 하 ‘貢人’의 선행 형태 2) 시전 상인 외 非시전계 사상인들의 성장 및 상활동 규모 확대 ① 중종조, 비시전계 시장을 도성 백성들의 주요 생계의 방도로 이해하여 이를 허용 ② ‘부상대고’로 불렸던 도성의 대상인들 중에는 전통적인 시전상인들과 더불어 비시전계의 사상인들도 포함됨. 이들은 도성을 비롯한 국내 상업만이 아니라 대외무역에도 적극 진출 → ‘난전’의 역사적 선행 세력 3) 주인층(主人層)의 등장과 영업 활동 ① 주인층의 등장 : 숙박을 제공하면서 객인들의 부세 상납과 상품 처분을 주관하거나 알선하는 중개상인으로 조선 후기 지방 포구와 교통상의 요지를 무대로 출현 ② 지역 : 도성 인근 경강 일대, 대외 무역 중심 거점인 의주와 삼포 ③ 내용 : 부세와 공물 등의 국가적 물류와 곡물·소금·어물 등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상품 유통을 대량으로 중개하면서 당대 도성 중심 유통구조의 핵심으로서 역할 ④ 도매상인 중개상인으로 영업하고 있던 ‘포구주인’ ‘객주’ 층의 전신 4) 장시 - 16세기 들어 더욱 전국으로 확산, 1달 내 개시일수 증가 5) 16세기 국제 상황 ① 명 - 해금정책 이완, 대외무역 활발 ② 일본 -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각지의 호족들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대외무역에 적극적임 ③ 조선 - 국내 상업의 발달, 지주제 확대, 사치 풍조 만연 등으로 대명, 대일 무역 성황 → 중계무역에 나선 경상과 개성 상인의 이익 규모가 매우 컸음 2. 새로운 상업 인식 - 일부 사림 계열 관료와 儒者들 사이에서 대두 1) ‘以末補本’論(대표 인물 이지함)

	리하고 있었음 2) 대외무역 ① 대중 무역 - 북경으로 가는 사행(使行)에 따른 공무역을 제외한 사무역과 밀무역 일절 금지 ② 일본과 야인 - 금·은을 비롯한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사무역과 밀무역을 엄금하되, 국가적인 규제와 엄격한 통제하에서 ‘교린’의 외교 방침에 따른 교역은 허용(ex. 계해약조) Ⅲ. 15세기 후반, 국초 상업 질서의 변화 1. 도성 상업의 발달과 시전 확대 1) 배경 1 : 도성의 인구 증가, 인구 중 상당수가 그 생업을 주로 상공업 분야에서 찾고 있었음 2) 배경 2 : 부세 체계의 변동 과정에서 조성 - 공납제 → 대납과 방납으로 변질, 이 과정에서 도성과 주변의 경강(한강) 일대가 이들 대납과 방납 물품의 최대 공급 시장으로 기능 2. 지방 상업의 영역 1) 장시의 등장 : 성종 원년 전라도 무안 일대 고을에서 처음 개설(월 2회) 2) 과전법(초기) → 직전제(세조) → 관수관급제(성종)로 토지제도 변화 → 수조권에 기초한 전주의 전객 지배 곧 경제외적 강제가 점차 악화, 농민들의 수중에 처분 가능한 잉여 농산물의 축적, 이에 부응하는 소상품 생산과 그 유통이 장시를 무대로 점차 증가, 이를 매개하는 보부상을 비롯한 행상들의 상활동 확대 3) 장시의 확산 : 삼남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산, 개시 횟수 증가 3. 선상(船商)의 활동 더욱 활성화 - 대규모 곡물, 소금, 해산물 등을 교역 4. 교환수단 : 포화(布貨) → 추포(麤布)	① 유교 전통의 ‘본말’관에서 벗어나 ‘본’과 ‘말’을 대등한 주체로 인식 ② ‘義’와 ‘利’ 역시 이를 주재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판별되는 것으로 보아 公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과 말업 진흥 정책을 긍정 ③ 농업을 여전히 산업의 근본으로 여기면서도 국가 재정과 민생을 위해 국가와 백성들이 말업인 상공업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 ④ 그러나 당대 이 주장은 조선 왕조의 국가 정책에 그대로 채택되거나 반영되지는 못함. V. 맺음말 : 조선 상업사에서 15~16세기의 위치 1. 국초 조선 국가가 표방한 ‘무본억말’ 정책은 또 다른 경제 이념인 ‘이권재상’론과 짝하여,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 농업과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상업과 상인의 활동을 ‘통제’하고 ‘관장’하려는 정책 2. 15세기 후반 이후, 조선 상업은 이 같은 국초의 경제구조가 동요하는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고, 16세기에 들어서는 그 발달상이 더욱 두드러짐 - 도성 상업의 확대와 발전, 비시전계 사상인의 등장과 ‘난전’으로서 시전 압박, 지방 장시의 출현과 전국 확산, 교환수단으로서 준명목화폐인 추포의 통용과 이른바 ‘추포경제’의 진전, 그리고 중국의 사치품과 일본산 은을 활용하여 양국을 잇는 중계무역을 통해 대외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던 조선 상인들 3. 16세기 이후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사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던 상업의 시대에 조선 상업과 상인들 역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 4. 유교 국가이자 농업사회인 조선에서 상업인식과 정책은 ‘무본억말’ 단계 → ‘이말보본’ 단계 → ‘상공업입국’의 단계로 역사적인 진행 5. 15~16세기 조선 상업의 구체 모습들은 ‘무본억말’ 단계에서 ‘이말보본’ 단계로 전환되는 과도의 시기에 펼쳐진 양상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조선 전기 경제의 변화상을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연결 지어 설명하면 좋을 듯 하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천재교육	Ⅵ. 조선의 성립과 발전	김일환, 2015, 「조선시대 왕실의 溫泉 목욕법에 대한 연구」, 『역사와실학』 37 - 83pp.	
태조 시기에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었고, 세종 때는 역버서인 칠정산을 제작하였다. 또한 규표, 간의, 혼상 등의 천문 관측기구와 일성정시의, 앙부일구, 자격루 등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I. 머리말		목두법-바가지로 물을 직접 머리에 붓는 법	
	1. 온천요법은 전통의학에서 선호하던 질병치료법으로 조선초부터 왕실, 사대부를 막론하고 온천욕으로 질병치료		3) 숙종의 목욕법	
	2. 조선왕실에서 선호하던 온천장은 온양온천으로 국왕의 온천행은 국가행사였음.		①온행 반대론자: 57세 연로한 몸으로 멀리 이동은 위험, 숙종의 화증을 다스리는 것에 온천은 적합하지 않음.	
	3. 기존 온양온천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자료정리에 치중함. 이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종합적 연구 필요.		②현종의 눈병이 온천욕으로 효험을 보인 선례를 말하며, 자신의 온천행을 강하게 주장.(심병의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	
	4. 온양온천을 찾은 국왕의 질병형태, 목욕방법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왕실문화 조망.		③고령으로 인해 온천욕 중간 휴식시간을 가지며 미역국, 보양음료를 먹으며 기력 고갈을 막기위해 노력	
	II. 조선시대 국왕의 질병		④숙종은 온천욕의 효능을 보지 못했으나 이에 따른 목욕법의 변화가 나타남.(체욕시 시간을 재는 기구 등장)	
	1. 국왕의 질병 종류와 증상		4) 영조의 목욕법	
	① 세종: 두통, 이질, 정신적과로, 당뇨, 당뇨병성 백내장		①침선법- 탕정앞에 목반을 깔고 앉아 물에 발을 담그며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물을 떠 씻는 법	
	② 세조(피부병), 현종(눈병, 습창), 숙종(화병, 담핵, 종기)		5) 사도세자의 목욕법: 탕욕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함.	
	영조(눈병, 담핵), 사도세자(습종)		3. 목욕도구와 국왕의 보양식	
	2. 온천요법의 유효성		1)여러 가지의 목욕도구	
	① 온천요법이 질병치료에 유효한지는 조선시대에도 커다란 논쟁거리였음.(세종:온천 후 효과못보자 실망/세조:온천욕의 중요성 언급)		①목욕 수건	
	②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한의서에 온천수 효능 및 치료법에 대해 언급		마정건- 몸을 닦는 때수건	
	③ 역대 국왕들이 온천을 찾는 이유는 의학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숙질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식정건- 비단으로 만든 물기 제거 수건	
	III. 역대 국왕의 온천 목욕법		②평상에 까는 요	
	1. 세종·세조의 온천 목욕법		③목욕 의자	
	1) 세종: 의서와 민간 목욕법 탐구(구체적 목욕법 기록x)		교기- 휴대가 간편한 접의식 의자, 목두를 할 때 사용	
	2) 세조: 세조대 세종대의 민간욕법 기록됨(장기적으로 목욕하고 오래 휴식, 1일 목욕 3일 휴식), 세조도 절후에 맞춰 목욕하고 보양식과 신체 보존 유지의 중요성 강조.		좌자- 교기 위에 까는 일종의 방석	
	2. 현종·숙종·영조·사도세자의 목욕법		2)국왕의 온천 보양식	
	1) 국왕의 온천욕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시기는 현종 대		①충청도에서 나는 토산물을 재료로 함. 현종 대에 진상을 3일에 한번으로 줄임.	
	①목과 욕으로 구분		②미역국, 생맥산(인삼, 오미자 음료), 이즙고(배, 꿀 음료)	
	목- 목욕용 기구에 앉아 오동나무 바가지로 온천수를 수천 번 머리에 붓는 것		V. 맺음말	
	욕- 탕에 몸을 담는 목욕법(시간 측정을 위해 수를 셈, 숙종 이후는 기구를 사용하여 시간을 잼.)		1. 세종은 습창, 당뇨병성 안질 등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 온천행을 택해 치료를 함. 세조 대 절후에 맞는 목욕법과 보양식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목요법을 진일보 시킴	
	②국왕이 목욕 할 때 승정원, 옥당, 약방의 관원이 문안하여 온천욕에 따른 국왕의 건강상태 변화추이 확인		2. 현종, 숙종 대 온천요법 정립됨. 목욕방법이 목과 체욕으로 구분되며, 숙종 대 금루를 처음으로 사용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함.	
	2) 현종의 온행과 목욕법		3. 조선시대 왕실 목욕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은 왕실문화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됨.	
	①총 5차례 온행, 머리에 붓는 바가지 횟수까지 기록			
	②유두와 체욕 구분			
	유두법-바가지에 구멍을 뚫어 공중에 매달아 머리로 흘러내리게 한 목욕법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조선시대 정치사, 외교사 외 왕실의 생활사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공통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V. 조선 사회의 변동 1-②.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펴다	안대회, 2019, 「정조대 군신(君臣)의 비밀편지 교환과 기밀의 정치운영」, 『정신문화연구』 제42권 제1호, pp.7-32.	
◎ 정조의 개혁 정치 영조의 손자로 왕위를 이은 정조는 노론과 소론뿐만 아니라 남인 세력도 등용하며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시행하였다.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설치하여 정책 자문 기구로 삼았다. 규장각에서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길러 냈고, 서얼 출신을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또한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으로 삼았으며,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정조는 민생 안정과 문화 발전에도 힘썼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고,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려 하였다. 통치 법전인 「대전통편」과 「탁지지」 등 많은 책을 펴내는 한편,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실용적인 학문의 발전에도 힘썼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조의 강력한 왕권 아래 봉당 간의 대립이 억제되었을 뿐, 봉당의 폐단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자료] : 규장각 설치 규장각은 역대 국왕의 글과 책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이었으나,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학문을 연구하고 주요 정책을 개발하였다. 정조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서얼을 검서관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37세 이하의 유능한 관리들 뽑아 규장각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게 하였다. 규장각 학자들은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여 정조 시기의 문예 부흥을 이끌었다.			I. 머리말 1. 정조는 조정의 고위관료들과 밀찰(密札)을 주고받으며 국정 현안을 직접 상의하고 지시하고 보고받음. 2. 정조에게 밀찰은 긴밀한 국정 운영의 비상시적 비제도적 장치였음. 3. 이러한 밀찰정치는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으나, 비정상적 국정운영과 과도한 비밀주의에 의존한 혐의가 있음.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 II. 군신의 비밀편지 교환과 기밀의 유지 1. 정조 치세의 비밀편지 애용과 수장 가. 현존하는 사료에 근거하여 볼 때 정조의 밀찰 정책은 치세 말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치세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었음. 나. 정조는 밀찰의 교환에 집착을 보였으며, 현존하는 사료 이상으로 많은 어찰을 보냈음을 추정할 수 있음. 2. 비밀편지의 성격과 정보 가. 정조에게 어찰은 사적 개인으로서 일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간편한 도구였음. 나. 정조는 공식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밀찰 교환을 통해 고위 관료와 사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하의 충성을 유도하고 기밀을 담아내는 등 밀찰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함. (공정적 측면) 다. 그러나 정조의 밀찰에는 신하들의 사생활과 비리, 성격 등을 밝히는 등의 편향적 성격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존재함. (부정적 측면) 3. 기밀 유지와 전담 팽례 : 기밀의 유지에는 국왕과 신하를 연결하는 팽례(倂隷)라는 전담 연락책을 사용함. III. 비밀편지와 기밀의 내용 [※ 대표 사례를 통한 밀찰정치의 성격 파악] 1. 도당록 현안과 정약용을 거부한 박종악의 밀찰 가. 1791년부터 1795년까지 집중된 박종악과 정조의 밀찰은 이 시기 복잡한 정국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연구 자료가 됨. 나. 도당록 안건의 핵심은 남인 좌의정인 체제공과 노론 우의정인 박종악 사이의 다툼이며, 밀찰에는 정약용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박종악의 의견 피력이 두드러짐. 1) 박종악은 체제공의 문하생인 이경명을 서인 노론이 싫어한 집안사람이라는 근거로, 정약용을 천주교에 물든 사람이라는 근거로 이들을 등용하는 것에 반대함.	2) 정조는 세 통의 밀찰을 연달아 보내어 박종악에게 체제공의 뜻을 따르라 권고함. 그러나 박종악은 노론 측이 체제공과 정조가 합의한 선발록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3) 정조는 정약용의 집안이 홍문관 벼슬을 세전(世傳)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도당록에서 뺄 수 없다 하여 박종악의 반대를 무위로 돌림. 다. 결국 도당록 대상 인물의 선정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무마에 처음부터 끝까지 국왕의 지시와 회유가 밀찰을 통해 전해짐. 라. 공식적으로는 도당록이 대신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국왕은 재가하는 과정만을 거치나, 정조의 밀찰 정치로 인하여 공개적인 상소와 지시는 피상적인 절차로만 작동하게 됨. (본론①의 결론) 2. 남당(南塘) 한원진의 추송(追崇)과 정조의 밀찰 가. 『정조실록』 기사에는 한원진에게 이조판서를 추증했다고 적는 등 공식기록에서는 이 사안의 과정과 처리를 간단하게 기록함. 나. 그러나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을 통해 수면 아래에서는 풍파가 거세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음. 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호락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조는 이 과정에서 심환지에게 낙론계 선비들에 대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어조의 어찰을 여러통 보냄. 라. 『정조실록』이나 『홍재전서』와 달리 밀찰에는 비중립적 태도와 과도할 정도의 감정적 접근이 두드러짐. 마. 정조에게 밀찰은 대신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의 하나였으나, 국왕이 학파 간 자유로운 논쟁을 막고 권력을 남용하는 혐의를 보임. (본론②의 결론) IV. 맺음말 1. 정조에게 밀찰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료와 정국의 정보까지 장악하고자 했던 정조식 국정운영의 핵심이었음. 2. 저자는 도당록 사건과 관련된 밀찰, 한원진의 이조판서 추증과 관련된 관찰을 통해 정조가 정상적인 정치운영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봄. 3. 밀찰은 노련하게 책략을 구사한 군신 간의 소통방법이나, 동시에 비정상적 국정운영과 과도한 비밀주의에 의존한 정치행태로 해석될 여지가 많음.

◎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마니또’ 활동을 좋아하고 SNS를 통한 DM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정조의 밀찰정치는 충분한 흥미유발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조의 밀찰 정치를 수업의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공통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V. 조선 사회의 변동 1-②.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펴다	허태용, 2019, 「정조대 초기 『영조실록』 편찬과 정치적 성격, 2021	
◎ 영조의 탕평 정치 붕당 정치의 폐단을 직접 겪은 영조는 붕당의 대립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탕평책을 시행하였다. 영조는 탕평의 취지를 따르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이조 전랑의 인사 권한을 약화하였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다.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속대전』을 편찬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더불어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으며, 청계천을 정비하였다. ◎ 정조의 개혁 정치 영조의 손자로 왕위를 이은 정조는 노론과 소론뿐만 아니라 남인 세력도 등용하며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시행하였다.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설치하여 정책 자문 기구로 삼았다. 규장각에서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길러 냈고, 서얼 출신을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또한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으로 삼았으며,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정조는 민생 안정과 문화 발전에도 힘썼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고,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려 하였다. 통치 법전인 「대전통편」과 「탁지지」 등 많은 책을 펴내는 한편,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실용적인 학문의 발전에도 힘썼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조의 강력한 왕권 아래 붕당 간의 대립이 억제되었을 뿐, 붕당의 폐단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I. 머리말 1. 즉위 초부터 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조에게 『영조실록』 편찬은 의례적인 과제 수행이 아닌, 선대의 역사를 노론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임을 피력하는 수단이었음. 3. 특히나 노론과 소론 간의 정치 의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인 무신란을 조망한다면 정조대 초기 정국의 성격과 『영조실록』이 지닌 정치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음. II. 『영조실록』의 편찬 주제 1. 실록 편찬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는 노론 측의 이휘지임. 2. 이휘지는 노론 4대신인 이건명의 조카이며 ‘노론 의리’를 상징하는 가문 출신임. 3. 그 외에도 황경원, 조준 등 ‘노론 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들을 역임시킴으로써 노론의 정치 의리 입장을 피력하고자 함. 4. 이처럼 『영조실록』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은 사실상 노론이었음. III. 『영조실록』의 무신란 분석 1. 『영조실록』의 무신란 시기 기록은 소론 계열의 주도로 집필된 『감란록』을 활용하여 편찬되었음. 2. 『감란록』은 무신란 발발 책임의 일부를 노론에게 돌리고 있어 노론측에게 철저히 외면받았기에 『영조실록』의 집필자들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 3. 그렇기에 『영조실록』의 집필자들은 『감란록』의 내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공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러한 가공의 내용을 검토한다면 『영조실록』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가. 첩입 (‘감란록’에는 없으나 ‘영조실록’에 첩입된 부분) 1) 무신란을 진압한 소론측 주요 인사들을 노론측 계열과 구별하지 않는 서술을 통해 소론측의 진압 공을 사실상 영조에게 돌려버림. 2) 이 외에도 기존의 서술에 추가적인 내용을 새로이 첨가함으로써	나. 산삭 1) 『감란록』에는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산삭의 경우 또한 노론 측에 유리한 서술을 하고자 하는 집필자들의 의도가 드러남. 2) 첩입 단계에서 『감란록』에 없는 내용을 첩입하여 소론 측에 대한 의심을 남겨둔 것과 반대로 노론 측에 대해 불리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산삭하여 무신란의 책임 소재를 돌림. 다. 개작 : 『감란록』에 있는 기록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서술 형태를 개작함으로써, 무신란의 책임 소재에 관해 피력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드러남. 라. 교정·천이 : 교정에는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발견되지 않으며, 천이 또한 단순한 날짜의 교정인 경우가 주를 이룸. IV. 맺음말 1. 『영조실록』의 무신란 기록은 『감란록』을 대본으로 삼은 후 주로 노론 측 편찬자들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재탄생함. 2. 『영조실록』을 통해서 정리된 노론 측의 정치의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가. 무신란 진압의 가장 큰 동력은 영조의 대략과 결단, 황천 및 조종의 돌보심 덕분이었음. 나. 무신란 진압 과정에서 소론 측의 대처는 미흡하였음. 다. 소론 내에서 특히 이광좌와 이삼, 윤순은 진심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었음. 라. 무신란의 근원은 유봉휘까지 소급되어야 함. 3. 이러한 형태의 집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론 측의 정치 의리가 무효화된 영조 후반기 이후의 정국 변화와 함께, 재위 초기 노론의 적극적인 정국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조의 정치적 필요성도 자리하고 있었음. 4. 정조는 영조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계승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영조실록』의 편찬 책임을 이휘지 등 노론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들에게 주로 맡김. 5. 결국 『영조실록』은 정조대 초기 국왕과 정치세력들이 합의한 ‘정치적 텍스트’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감란록』과 구별되는 노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음. 3) 또한 영조 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을 함으로써 소론 측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소론 측의 허물을 드러내는 등의 효과를 냄.	
◎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① 역사 기록의 주체를 노론 집필자로 삼을 만큼 당파 간의 의리는 국왕으로서도 등한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잘 각색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학습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V. 조선 사회의 변동 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김미지, 2019, 「17~19세기 조선 후기 문헌에 나타난 유럽과 유럽 상의 형성」, 『한국학연구』 69, pp.41-72.	
1. 통신사와 연행사를 통해 교류하다 ① 조선은 청에 연행사로 불리는 사절을 파견하였고, 청도 칙사라 불리는 사절을 조선에 보냈다. ② 연행사는 공식 외교 업무 수행 외에 중국 측 관료나 학자들과 교제 ③ 이를 통해 몽골, 류큐, 서양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음 ④ 특히 천주당을 방문하여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음 2. 서학을 수용하고 실학이 발달하다 ① 조선은 중국을 오가는 사신을 통해 17세기 초부터 천주교와 서양 문물, 즉 서학을 수용 ② 「곤여만국전도」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들여왔고, 소현 세자도 여러 서양 문물을 가지고 귀국 ③ 벨테브레이, 하멜 등 표류인들도 서양 문물 전해 주었음 ④ 김육은 청에서 사용되던 서양 역법인 시헌력을 도입 ⑤ 홍대용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 천문학의 발달과 세계지도의 보급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데 크게 기여			I. 들어가며 1. 우리 역사에서 유럽이라는 먼 지역의 존재가 인식되고 발견된 것의 연원 ① 실크로드를 개척한 한나라 때부터 (경주 출토 페르시아 유리 등) ② 직접적인 접촉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중 한반도에 닿은 선교사 및 17세기 표류하여 들어온 박연, 하멜 등 (여전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천하관) ③ 본격적 침범은 18세기 후반 이양선의 출몰과 천주학과 서학의 전래 ④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관계 형성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 통상을 맺으면서 2. 그러나 19세기 말 이전부터 유럽에 대한 관념은 확장되어 갔음, 저자는 이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 II. 조선시대 문헌에 기입된 이양선과 서학의 문제 1. 실록과 문집에 언급된 이양선의 존재와 현상 ①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지방관의 장계 ②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미숙하게 처리한 관리를 처벌하고 장계 하자는 상소문 2. 이는 낮선 존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었음을 의미, 그러나 감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안도감이 보이기도 함 3. 그러나 19세기 아편전쟁으로 위기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김정희는 영국이 남긴 지도의 정교함을 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국경을 정밀하게 살폈음을 경계함 4. 당시 조선인들에게 낮선 신세계의 문물과 제도는 호기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서 양가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음 5. 서양에서 전해진 문물은 학문의 대상으로 매혹적으로 받아들여짐, 연행사와 통신사를 통해 서학서는 꾸준히 조선에 전해졌지만 연구되기까지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아담 샬의 시헌력이나 『기하원본』으로 번역된 유클리드기하학 등) 6. 서학은 지리와 천문, 수학 등 과학 지식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그	5. 이후 영국인들의 직접 확인한 그들의 외양과 의복, 배의 모양과 물건 등을 그림 그리듯 상세히 묘사하며 영국인들은 “더러는 희어 분을 바른 것 같고, 더러는 검은 먹칠한 듯”이라 표현 6. 한편 영국에 비해 프랑스는 그 국명과 존재가 조선에 훨씬 늦게 알려졌고, 국명조차 분명하게 감지하지 못했음 7. 이규경은 불랑서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느 지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서적에 보이는 불랑기, 불랑찰, 불람제야, 불란기 등 비슷한 국명으로 미루어보아 대서양과 구라과 중 한 나라임이 틀림없다고 추론 8. 또 프랑스는 천주교 박해로 자국 선교사가 살해당한 점을 명분으로 조선에 접근하여 조선에서 경계한 모습이 자주 보임 “원수元帥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광동에 있다.” “광동은 여기서 몇 리나 되는가?” “수로로 3천 리이다.” “당신네 나라는 이곳에서 몇 리나 되는가?” “이곳에서 수로로 2만 리이다.” 그 배에 실은 것은 모두 대포와 화약·연환鉛丸이었고, 기타 비단과 잡화가 가득하였으나 배 밑에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하였다. “배 안에는 몇 명이 있는가?” “7백 명이 있다.” 하였는데, 그 기세가 매우 사나웠으며, 사람들은 푸른 눈동자에 머리는 노란 색이었고 의관은 이상하고 야릇하였다. 9. 이는 중국이 1차 아편전쟁 이후 불평등 조약과 함께 개항한 시점 이후기 때문으로 보임 10. 한편 2만 리라는 답변도 앞선 기록보다 구체적임, 이는 프랑스에서 미터법을 제정하여 2만 킬로미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니 번역 과정에서 리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됨

	범주 내에는 천주학 역시 큰 비중으로 존재했기 때문 7. 유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천주학이 서학 전체와 동일시되거나 매도되면서 서학은 곧 사학이 되고 금단의 영역에 들어감 (정약용 일가에 대한 박해) 8. 이후 천하의 중국이 아편전쟁을 겪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며 조선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주민들은 중화의 질서와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더 크고 압도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하기 시작함 III. 기록을 통해 본 구라파와 구라파인들의 형상 1.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구라파국 또는 태서국이라는 명칭이 등장, 유럽이라는 땅이 있고 거기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음 2. 유럽은 천하의 중심에 자리 잡은 중국 바깥의 여러 오랑캐 가운데 하나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짐 3. 청나라가 여러 서양 국가와 통상 교역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리서나 백과전서, 세계지도가 등장하면서 구체화 4. 18세기 초 통신사 임수간이 남긴 사행 기록 『동사일기』를 보면 일본 유학자 백석(아라이 하쿠세키)과 필담을 나누는 대목이 있음 5. 서양과 유럽의 국가에 이름만 들어봤을 뿐 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학자가 서양을 대서양과 소서양으로 나누는데 중국에서 가까운 쪽을 소서양, 먼 쪽을 대서양이라 지칭한 것임 6. 이러한 인식은 조선인들이 1832년(순조 32) 영국 이양선을 만나 필담으로 나눈 대화에서도 드러남 7. 다산이 문헌으로 접한 네덜란드인들(아란타 또는 홍모국 사람)을 표현한 대목에서 유럽인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라지기 시작 8. 『한성순보』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유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쌓여갈 뿐 이를 정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단계는 아니었음 IV. ‘영길리’와 ‘불랑서’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삶의 변천 1. 다산은 문헌과 지도를 통해 확인한 영국 ① 에스파니아 바다(북대서양)에 있는 섬나라로 일본이 큰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② 상업을 본업으로 하여 사해를 두루 다니면서 아프리카, 남인도 등지에 진출 ③ 배를 집으로 삼음 ④ 리미아(아프리카)의 연안과 남인도 등지에 진출하였으며, 서남 여러 나라의 연안에 버린 땅이나 공지를 얻게 되면 그곳을 점거 (식민을 뜻하나 다산이 식민지 경영에 대한 지식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11. 이유원이 지은 『임하필기』(1871) 중 「이역죽지사」라는 글에서 유럽 각국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외양을 짐작할 수 있는 묘사가 남겨져 있음 영길리국 중군에다가 잡색의 다라움을 입고 / 重裙雜色哆囉絨 금루합에 비연을 담아 가지고 다니네 / 壺貯鼻煙金縷中 시집가지 않은 여자 허리 가늘게 하려고 / 未嫁女兒腰欲細 평소 허리를 뽕뽕 묶는 일 이골이 났네 / 生來裝束夙成工 법란서국法蘭西國 불랑서는 바로 불랑기인데 / 佛郎西卽佛郎機 미락을 중분하고 여송을 차지했네 / 美洛中分呂宋歸 홍모인과 합세하여 민과 월을 지배하고 / 合勢紅毛閩粵擅 영길리와 패권 다투다 근자엔 쇠미하네 / 爭雄英吉近衰微 11. 이 글에서 프랑스를 지칭하는 명칭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프랑스인의 외양을 묘사하기보다 식민지 침략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로움 – 아메리카(미락), 필리핀(여송), 네덜란드인(홍모인), 복건성(민), 관동성(월), 19세기에 아시아에 진출한 영국과의 싸움에 밀린 점 등 12. 이유원의 글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각국의 정보가 한문 서학서를 통해 꽤 축적된 19세기 후반의 글로 비교적 객관적인 묘사나 서술이 가능해졌으며, 더 이상 오랑캐나 야만인이 아닌 세계의 주류임을 확인한 것 13. 19세기 말 유럽 각국 및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1880년대에는 『한성순보』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삶이 드러남 영국: 기계의 정교함과 상인들의 부지런함은 세계의 제일이며, 포함砲艦의 견고함과 훈련이 잘된 군대는 만국의 으뜸이니, 가위 전성全盛의 나라이며 명성名聲을 떨치는 나라라 하겠다. 그러나 이 영국은 역사가 짧아서 황폐하던 시대가 엇그제 같은데도 이처럼 발전하였으니,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마땅히 탐구해 볼 일이다. (6호) 미국: 서방 인근의 국가들보다 유독 부강하였기 때문에 한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米國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곧 아미리가亞米利加(아메리카)의 약칭이고 지금은 미美자로 대신하지만 본국 정부가 개정한 호칭은 아니다. (...) 이 나라가 건국하고 도읍을 정한지 겨우 100년을 지났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게 된 것은, 실로 운수의 편의를 얻고 이익될 만한 것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2호) 프랑스(법국): 만일 외국과 분쟁이 생기면 그 허다한 당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 때문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자는 항상 외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민심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한다. 그래서 마달가사가馬達加斯加(마다가스카르) 및 안남安南(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오늘날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5호)
--	---	--

	2. 이러한 인식은 ‘영길리국 표선기’에도 등장 (“험한 바다를 건너느라 괴로움을 겪었을 터인데 죽거나 병을 앓는 염려가 없는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영국사람들은 배를 집으로 삼는지” 등 질문 이에 영국 선원은 집에서 산다고 부정함) 3. 이 기록을 미루어 보아 영국 선원을 죄인으로 취조한다기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접근, 더불어 50여 차례의 문답이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음 “무슨 곡식의 농사를 짓는가?” “대미大米와 오곡五穀의 농사를 짓습니다.” “영국은 산이 많은가 물이 많은가?” “산이 많습니다.” “영국 서울을 무엇이라 하는가?” “난돈蘭墩(런던)이라 합니다.” “영국은 면적이 몇 리나 되는가?” “중국과 같습니다.” “난돈 성城은 얼마나 큰가?” “75리입니다.” “문무 관원은 얼마나 되는가?” “몇 백 명이나 됩니다.” “영국왕의 성姓은 무엇인가?” “함즉咸即입니다.” “영국에서 북경까지는 몇 리나 되며, 우리나라까지는 몇 리나 되는가?” “북경과의 거리는 약 7만 리인데, 수로 4만 리에 육로 3만 리이며, 귀국과의 거리는 수로로 7만 리입니다.” 4. 더 큰 관심사는 중국 바깥의 오랑캐로만 알고 있던 이들이 중국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 ∴ 청국과의 관계로 미루어 조선의 위상을 따져보기 위함 “너희 나라에서도 대청大清을 아는가?” “북경 황제국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서로 통상하며 또한 가져다 바치는 것이 있는가?”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청에 가 교역하는데, 두 나라가 고루 크고 세력이 같으므로 진공進貢하지 않습니다.” “군신의 분별이 없는가?” “흠차欽差가 우리나라에서 북경에 가도 계단 아래에서 고두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호) 독일(덕국): 도는 비록 각 연방마다 다 두고 있지만 프러시아 수도 백림부伯林府(베를린)가 으뜸이거니와 전국의 정무도 모두 이곳에서 결정되는 셈이고 이곳의 인구를 계산해보면 1백12만 2천3백60명이나 되고 유럽의 4대 도시 중 제3에 해당된다. 서양인들이 항상 말하기를 영국의 서울 룬돈倫敦(런던)은 천하에서 상업의 중심이고 프랑스의 서울 파리巴里(파리)는 천하에서 교제의 중심지이고 베를린은 천하 학술의 중심지라고들 하는 것은 대개 각 국의 석학과 홍유鴻儒(이름난 유학자)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서 시무時務를 강토講討하고 있기 때문이다. (19호) V. 결론 1.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18~19세기 초, 당대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전래한 문헌과 지도를 통해 유럽을 어떻게 상상했으며, 19세기 후반 조선의 위상 변화와 외래 지식의 증가가 이러한 인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검토 2. 호기심과 얇의 의지에서 점차 천주교를 앞세워 다가오는 점에 대한 공포와 관심, 청이 겪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으로 조선에 다가오는 유럽 열강의 힘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당시 문헌과 기록을 자료로 제공하고 다가오는 이양선과 유럽 세력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등을 바탕으로 가상 일기 쓰기, 친구에게 편지 쓰기, 왕에게 장계 올리기 등의 글쓰기 수업이 가능할 듯 2. 당시 조선인들의 기록을 언급하며 수업에 흥미 유발이 가능할 듯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천재교육	V. 조선의 사회의 변동	최성환, 2016,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역사비평』 127 - 155pp.	
정조는 영조 때부터 세력을 키워 온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봉당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을 고루 등용하였다. 또한,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장각을 개편하고 강력한 정치 기구로 만들었다. 또한 젊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개혁 세력으로 육성하였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정조는 문물제도와 통치 규범을 정리하여 『대전통편』 등을 편찬하였고,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실용적인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밖에도 서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정조의 개혁으로 봉당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 간의 대립을 한때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정조가 죽은 뒤 정치 세력은 다시 극심하게 대립하였고, 이는 세도 정치의 배경이 되었다.			I. 머리말 1. 탕평정치:봉당저치의 폐해 극복, 군주권 강화위한 체제 개혁이라는 점 2. 문학계에서 정조에 대한 관심 심화: 역사학계에서 구축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해석 시도(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인간 정조의 모습 부각 등) 3. 1990년대 이후 증대된 대중적 관심의 방향, 이에 영향을 주었던 학계의 기존 연구 동향, 필자의 비평 II. 근래의 새로운 시각들 1. 인간 정조에 대한 관심의 증대 1) 2009년 ‘정조-심환지 어찰첩’ 발굴로 정조 인간상과 통치술 재조명 -벽과와 친밀한 교류 및 조종, 비속어 사용하는 모습 2) 필자의 주장: 『정조실록』에 이미 드러나 있는 언행으로 벽과와의 관계 재조명 이외에는 정조의 역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할 이유 없음 3) 문학계는 정조의 역사상에 대한 회의론을 군힘 - 『권력과 인간』:영조 편집증, 사도세자 미치광이, 정조 생부를 추송하기 위해 역사 조작한 세속적 군주로 설명 -> 영화 ‘사도’에 참고문헌이 됨 2. 임오화변을 둘러싼 논란 1) 당쟁설, 성격갈등설, 광병설 2) 당쟁설 주도: 이덕일의 『사도세자의 고백』 노론과 소론의 흑백 대립으로 단순화 ->역사학계 당쟁설-성격갈등설 종합시도 3) 어찰집 공개 후 문학계 당쟁설 정면 배척:사도세자의 반역죄인설 제기, 「금등」 문서 조작 주장 4) 필자의 주장: 영조는 세자의 반역기도를 공식화 하지 않았으며 ‘폐세자반교’는 영조에 의해 철회, 「금등」도 정조 즉위 직후 채제공이 보고 3. 임오화변과 당쟁 1) 근래 임오화변은 제정신이 아닌 부자가 벌인 비극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다수, 당쟁은 임오화변의 원인과 관계없다는 시각 2) 필자의 주장 -세자의 지위가 당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스트레스가 광병에 영향 당쟁 회생설과 광병설 두가지 모두가 사실 -탕평정국에서 당쟁은 다양한 양상(보호론, 위동론 등)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당쟁의 복잡한 구도 이해 필수적 -새로운 쟁점들은 문학계, 대중문화계의 연구이며 이들은 한국사학계의 성과에 따라 담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한국사학계의 주요연구 재검토 필요 III. 정조대 연구의 주요시각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1. 탕평은 봉당정치 혹은 당쟁의 부정인가? 1) 영조-세자 개인 갈등 부각:노론-소론 대립 구도에 대한 비판의식, 식민사학 극복 노	력 반영 2)필자의 주장: 당파의 생성은 정치에 활력을 부여하는 요소이며, 당대 군주들은 이를 관리할 능력이 있었음.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계자를 둘러싼 당쟁은 언젠 발생할 수 있는 현상(강희제, 표트르대제), 따라서 영정조대 정치사는 당쟁적 서술이 문제가 아니라 당쟁의 분화양상 및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 -세자보호론’과 ‘세자위동론’을 둘러싼 새로운 분화 현상, 정조 견제-균형 -당파는 정국 변동에 따라 새롭게 분화 재편 2. 정조는 일군만민의 대동사회를 지향한 절대군주였는가? 1) 탕평군주: 중간 수탈자를 배제하고 일군만민의 대동사회 지향하였다는 인식 2) 필자의 주장 -정조는 신분제 완화는 하였지만 자체를 철폐하려는 문제의식 없음.(사노비는 재산으로 인식, 서얼의 청요직진출 불가능) -신해통공= 징수체제를 단순한 방향으로 정비, 사상인 침탈 방지이긴 하지만 대동세계의 이상 실현은 아닌 것 -대동의 개념은 중국 근대 개혁기에 등장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지향한 것으로 탕평군주를 혁명의 유토피아로 설명하는 것은 비약 -리일분수(理一分殊): 친소와 귀천이 분립되어 있지만 사사로움에 구애되지 않고 공정한 정사를 펴는 것 ->유학의 예=차별의 원리를 전제로 화합의 원리 동시에 보존 -일군만민은 근대 일본에서 천황권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개념 -탕평군주를 일군만민, 대동사회의 이념으로 설명해서는 안됨. 3. 의리탕평과 주자학, 그리고 국가·사회개혁론 1) 기존의 인식: 정조는 실리탕평으로 주자학적 의리론을 부정한 군주 2) 필자의 주장 -정조는 공적의리에 따른 의리탕평론자이며 철저한 주자학자임. -근거: 임오의리 (1)영조가 사도세자가 의리죄인은 아니지만 실성광역해서 처분하였다는 임오의리를 전제로 하여 생부의 공덕만 추가 즉, 영조의 임오의리 수정만 (2)당시 갈등하던 신하들을 포용하기 위해 영조 임오의리보다 한단계 높은 통합적 의리 제시 -근거2: 사도세자 추앙 (1)추앙은 군주의 사사로움 효심 충족을 막기 위해 금기시 되어있음. 이에 영조도 정조를 효장세자의 후사로 둠 (2)추앙 반대에 부딪히자 후계자에 맡기고 자신은 상왕이 되고자 함. 추왕과 자신의 왕위를 바꿈 (3)모든 결정에는 군신과 합의한 공적인 것을 준수해야하며 추앙의 문제는 왕위를

	포기하는 것까지를 동원해야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 즉 공적의리의 주자학적 정치론을 체화하고 있는 것 -근거3: 화성 신도시 건설 (1)상왕으로 물러나 지낼 도시이지만 왕권 강화의 표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의 시험장으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국가의 사업은 공적 의리에 맞게 진행되어야한다는 주자학자의 판단 V. 맺음말 1. 정조에 대한 대중문화계의 부적절한 서술에는 학계의 책임도 있음(정조의 정치를 당파적 애증관계로 축소, 근대 사회 혁명의 전사로 취급) 2. 탕평군주 정조는 정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미디어 활용 토론수업 역린, 사도 등 영정조대의 영화를 핵심장면만 추려 시청/ 해당 논문 필자의 주장 핵심 정리 학습지 배부 정조는 아버지의 희생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인간일까? 정치적 맥락에 따라 행동한 임금일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한국사	천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6.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이육, 「허생전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 『역사비평』57호, 2001.
사상이 성장하다 조선 후기에는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 수공업, 광업 등에서 생산력이 증대하면서 상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상업 발전은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공인과 주요 도시의 사상들이 주도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도성 안에서 정부의 허락 없이 상업 활동을 하는 사상이 늘어나 이현, 칠패 등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면서 시전 상인의 상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으로 사상들의 상업 활동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상들의 성장은 막을 수 없었으며, 18세기 말 정부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신해통공, 1791). 사상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여 물품을 교역하고 상권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청, 일본과의 대외 무역에도 참여하여 부를 쌓았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있었다. 공인과 사상 중 일부 상인들은 상권을 확대하고 자본력을 키워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하는 도고로 성장하였다.			● 선택한 이유: 도고의 존재 과정/ 허생전 등 소설을 활용한 수업 방안 고민 이육: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지방재정사, 조선 후기 상업 연구) 1. 허생전에 깃든 염원들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민중 사이에 전해오던 허생 이야기에 박지원 자신의 사상을 덧붙여 재구성 -박지원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조부, 부친을 여의고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등 유복한 삶을 살지 못함 -44세 되는 해 중국에 가서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과 생활상을 목격하고 인식의 성숙을 겪게 됨 -헛된 의리와 명분에 집착하는 지배계층 비판, 청나라의 장점을 배우고 익혀 능가해야만 북벌이 비로소 가능함을 주장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농업 발전 못지 않게 상공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입장 2. 양반상인론-양반도 장사를 하자 -허생은 ‘남산골 샌님’이지만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 극도로 궁핍했음, 이러한 선비가 장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직업이 당시로서는 상업이었음(따라서 국가에서는 상업 규제 및 천시) -필자는 남산골 샌님 허생이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 것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양반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상업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박지원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허생의 한계: 생업을 위해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시험해 본 것 뿐임(박지원의 선비관 반영) 3. 변부자와 중개무역 -집을 나선 허생이 가장 먼저 찾아간 ‘변부자’는 조선 속종의 ‘변승업’이 모델이었을 것 -변승업 집안이 부를 쌓은 것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한 것 -17세기 말 청-일본 통상으로 인해 조선의 중개무역 큰 타격을 입기도 함 4. 허생의 상술과 도고상업 -허생은 교통의 요충지인 안성(서울로 가는 중간집산지)에서 상품을 매점해두고,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판매 -원료를 산지에서 독점하는 방법 -독점적 매점상업은 18세기 상업의 가장 큰 특징, 도고상업의 발달을 의미 -대외무역, 고리대로 거대 자본 축적한 상인의 등장+양난을 거치며 황폐화된 농토에서 이탈 -금난전권 폐지 이후 경강상인, 개성상인은 자본과 조직망을 토대로 도고 상업 전개 -경강상인은 조선업에, 개성상인은 인삼재배 및 가공업(홍삼제조업)에 자본 투자 5. 허생의 꿈-조선시대의 상업관 -허생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독점이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말함: 상업을 통한 이윤추구는 국부 증진과 백성 구제 등 사회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허생은 상업을 통해 번 돈을 도적을 교화시키기 위한 이상향을 건설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함 -박지원은 상업의 유용성을 인정했으며, 일정한 소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사료 허생전에 나타난 도고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밤, 대추, 감, 배, 굴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도거리로 사두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하였다. 허생은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이어서 허생은 그 돈으로 곧 칼, 호미, 삼베, 명주 등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 말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망건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허생은 50만 냥에 이르는 큰돈을 벌었다. － 박지원, 『연암집』－	－현실 속 상인의 행태를 보고 허생과 같은 상인을 그리게 되었을 것 6. 허생이 농친 것 －박지원이 농친 것: 개인적 이익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 국내 시장 규모의 성장(조선의 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인식) －저자는 장시의 확대, 농민들의 상품작물 재배, 지역 특산물, 상인들의 유통로 개척 노력, 포구의 발전 등, 시장권이 확대되며 상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다고 지적함
---	--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 양상을 수업에서 다룰 때 어려움이 있었음 (이 저자의 관점은 농업-상업의 연결을 설명하기에 좋을 것 같음) － 허생전 등 소설을 통해 수업하는 방안 (양반전, 허생전 등 박지원 소설을 국어 교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구요)
--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한국사	동아출판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6.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0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이옥, 2001, 「허생전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 역사비평사, pp.274-293.			
2. 농촌 경제의 변화로 농민층이 분화하다 17세기 이후 양 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간 사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경지 면적이 빠르게 회복되었다. 농민 역시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법을 개량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특히 모내기법(이앙법)이 보급되며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모내기법으로 김매는 일손을 덜고 수확량은 배로 늘렸으며,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졌다. 밭농사에서는 이랑을 만든 후 생긴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일반화되어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농법의 개량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한 사람이 농사지을 수 있는 경작지의 규모가 커졌다. 또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인삼, 면화, 담배, 채소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은 부농층으로 성장하였지만, 경작지를 잃고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도 늘어났다.			1. 허생전에 깃든 염원들 1) 박지원의 순수 창작물이 아님 - 조선 후기 민중의 염원과 박지원의 염원, 그리고 이러한 염원을 품게 한 조선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생산된 창작물 2) 조선의 현실 - 권력층은 여전히 의리와 명분에 얽매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거나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3) 허생전에서 보인 ‘북벌’에 대한 입장(이완과 허생의 대화) ① 자네가 능히 조정에 아뢰어서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명나라 장수의 후예에게 시집보내고, 김류, 장유 따위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살게 해줄 수 있느냐? → 헛된 의리와 명분에 집착하는 지배계층을 비판 ② 나라 안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 지식층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서민들은 멀리 강남의 장사치로 스며들게 하시오.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그들의 호결과 교제를 뺏아야 천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나라의 부꾸러움을 씻을 수가 있소.“ → 북벌하려면 청나라의 장점을 배우고 익혀 그들을 능가해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일 ③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완 4) 중국과 조선을 비교하면서 상공업의 발전에 주목,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농업의 발전 못지않게 상공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입장		3. 변부자와 중개무역 1) 변부자(변승업 집안) :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성장 2) 조선 시대 대외 무역의 특징 - 역관을 통한 중개무역 발달(조선의 상업 억제책과 연관) 3) 17세기 말엽의 변화 ① 청나라가 일본과의 통상을 공식적으로 허락, 나가사키에 청관(淸館) 설치 → 조선의 중개무역에 큰 타격, 1720년 무렵부터 동래 왜관을 통한 일본 은의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음 ② 조선 정부 - 비단이나 백사 등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 - 정부가 소유한 은을 역관들에게 무역자금으로 대출해주던 일종의 특혜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관행마저 금지	
3. 수공업과 광업이 변화하다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민영 수공업자는 규모가 크지 않아, 상인에게 자본과 원료를 미리 빌려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선대제 수공업).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주요 원료인 광물의 수요도 커졌다. 광물은 본래 정부가 백성을 동원해 채굴하였으나, 점차 백성을 동원하기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채굴을 허용하였다.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잡채도 성행하			2. 양반상인론 - 양반도 장사를 하자 1) 허생 : 남산골 샌님		4. 허생의 상술과 도고상업 1) 허생의 상술 - 안성이라는 교통의 요충지(서울로 물품이 반입되는 중간 집산지)에서 매점매석 2) 도고 상업 ① 18세기 우리나라 상업의 가장 큰 특징 - 도고 상업의 발달은 17세기 상업 발달의 결과이기도 - 17세기 : 민간 상인이 참여하는 대외 무역의 규모가 커짐, 금속화폐가 널리 유	

였다. 광산은 주로 덕대라는 광산 경영인이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하여 채굴업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4. 공인과 사상이 성장하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공인은 국가에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 생산을 촉진하였고 장시가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사상도 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성 안까지 진출하여 활발한 상업 활동을 펼쳤다. 도성 안의 상업을 독점해 왔던 시전 상인은 정부에서 금난전권을 부여받아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사상은 자유로운 상행위를 요구하면서 금난전권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정부는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금난전권이 폐지된 뒤 사상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한성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성장하였다. 이들 사상은 전국을 상대로 활동하면서 공인과 함께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하였다.

5. 장시가 발달하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5일마다 열리는 장시가 전국에 1,000여 곳에 이르렀다. 보부상은 지방 장시를 무대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펼쳐, 각 장시를 유통망으로 묶었다.

상품 교역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 요지와 포구에 있던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포구는 조세와 상품을 운반하는 주요 통로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경강상인 등 선상의 활동으로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되어갔다. 한편 규모가 큰 장시와 포구에서는 객주와 여객 등의 상인이 등장하여 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등에 종사하였다.

6.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다

국내 상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국, 일본과의 무역도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이후 국경 지역에서는 개시(공무역)와 후시(사무역)가 이루어졌다.

청과의 무역은 의주의 중강과 중국 봉황성의 책문 등 국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무역은 17세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동래의 왜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청에 금, 은, 인삼 등을 수출하였고, 청에서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하였다. 일본에는 인삼, 쌀, 무명 등을 수출하였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을 중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17세기에는 중국의 비단과 조선의 인삼, 일본의 은이 집중적으로 교역되면서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은 유통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후시 무역이 확대되면서 청과의 무역에 참여한 만상,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한 내상, 이들을 연결한 송상 등이 큰 부를 축적하였다.

7. 화폐 유통이 확대되다

상공업이 발달하고 세금과 지대를 동전으로 낼 수 있게 되면서 금속 화폐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상평통보가 주조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 ① 명분과 의리에 얽매어 사는 꼬장꼬장한 선비의 대명사(딸각발이)
 - 변변한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하고, 다른 일 특히 생업에는 아주 손방이어서 아예 손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개 극도로 궁핍하여, 삼순구식의 비참한 생활을 함.
 - "요놈, 요 께썩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 실제로는 졌지만, 마음으로는 지지 않았다는 양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결불은 안 똥다는 지조, 이것이 그들의 생활신조
- ② 이러한 대꼬챙이 선비가 자리를 박차고 장사에 나섰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
 -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큰 폐단 중 하나로 관직을 갖지 못하고 토지도 없는 양반들은 먹고살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제시
 - 조선 정부의 역상 정책 : 상인과 그 자식들에게는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 양반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장사를 할 수 없는 현실
 - 몰락한 양반 중에서 더 이상의 방도가 없어 행상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소수...)
- ③ 허생에 나타난 한계
 - 그가 장사를 나선 것은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님
 - 주립을 참지 못해 배운 것을 시험해보았을 뿐,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라는 것 → 박지원의 선비관이 허생에게 그대로 반영된 것)

- 통되면서 고리대가 성행, 상업 인구 증가
- ② 경강상인, 개성상인
5. 허생의 꿈 - 조선시대의 상업관
- 1)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고에 대해 부정적
 - 2) 상업을 통한 이윤 추구는 국부 증진, 기민(饑民) 구제 등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 3) 박지원의 생각
 - ① 상업의 유용성 인정, 일정한 소비가 생산을 끌어냄 → 국부 증진
 - ② 기민구제라는 명분보다는 흥년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선택했던 당시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 허생과 같은 상인을 그리고 싶었던 지도
6. 허생이 놓친 것(부제 : 박지원이 놓친 것)
- 1) 조선의 상업 발전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었음
 - 2) 상업의 발달 - 장시, 유통의 발달(육로, 해상), 상업거점 형성
 - 3) 농업기술의 발달 - 상품 작물, 모내기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자 양반, 상인, 지주는 화폐를 유통 수단이 아닌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삼아 많은 양을 보관하였다. 이에 시중에 동전이 크게 부족한 전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화폐를 몰래 주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편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규모 거래에서는 어음, 환 등 신용 화폐도 사용되었다.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허생전에서 본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그림일기로 작성하기, 박지원의 생각과 그에 대한 모듈별 생각을 발표해보기, 박지원 등 실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교 분석한 후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보기 등 2. 문학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 것 같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IV. 조선의 성립과 발전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했을까?(김준혁,2019)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더욱 강력한 탕평책을 시행하였다. 그는 영조 대에 세력을 키운 외척 세력을 제거한 후, 그동안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남인과 소론을 적극 등용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장각을 정비하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정치 개혁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동안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던 서얼을 규장각의 관리로 등용하고, 노비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였다. 한편 정조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광산 개발을 장려하였으며,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상공업을 진흥하였다. 나아가 편찬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대전통편, 탁지 지 등을 편찬하였다.			머리말 - 정조의 개혁정책과 관련해 실물로 남아 있는 화성은 도시 자체이자 성곽을 의미하며 ‘화성(化城)’의 이름에는 화성에 거주하는 백성들 모두가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인구가 번성해 대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정조의 마음이 들어있음. - 정조는 화성을 조선의 ‘제2도시’로 설정하였으며 기반 시설 공사와 함께 역촌 이전, 시장 건설 등 교통과 상품의 거점이 되기 위한 작업을 함께 진행함. - 왜 정조는 한양 남쪽에 있는 수원에 엄청난 비용과 정력을 소모하면서 화성을 건설했을까? 이유1.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 - ‘죄인의 아들’로서 정치적 타격을 받음 → 백성을 위해 국가를 개혁하려면 왕권강화가 필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복권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① 천하명당이라는 수원도호부 관아 및 읍치의 주산인 화산(花山) 아래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만들 → 수원 읍치의 이전, 화성유수부로 승격, 장용영외영 설치, 화성 성곽 건설 ②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어머니와 화성행궁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움 →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기 위함 → 실권을 본인이 가지고 국정개혁을 주도하려함. 화성을 ‘양경제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 이유2. 국방 개혁의 요처로 육성 - 정조가 수원을 정국구상의 핵심거점으로 선택한 이유 ① 수원이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군사상 요지임. ② 수원은 교통상의 요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음. ⇨ 장용영 향군 5초 설치 - 정조의 능행차시 왕 보호, 현릉원과 수원도호부 호위 - 매년 1,000섬에 달하는 곡식 공급으로 재정적 안정 → 안정된 군사 기반을 중심으로 왕권 강화를 꾀함. ⇨ 수원신읍치에 성곽 축조 - 한양과 경기지역을 보호하는 군사기지 역할 ⇨ 화성유수부 신설하여 수원의 지위 격상

	이유3. 상업제도의 혁신 기반도시 - 대도시를 만들어 백성들이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함. - 한양의 부상을 일부 받아들이고, 수원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조정에서 6만 냥 지원, 시전을 설치하고 장사하게 함. → 한양의 부상과 수원의 상인, 전국 각지의 상인이 독점권 없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됨. - 신해통공(1791, 정조 15년) : 독점권을 가진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 혁파 ⇒ 조선 경제구조의 대대적 혁신,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가 보호받고 상업 발전이 촉진됨. 이유4. 저수 농법과 둔전 경영의 농업 개혁 추진 - 대대적인 퇴비의 증산 - 척박했던 수원의 토지가 농사짓기에 최고의 토양으로 변모함. - 저수지 조성 ex) 만석거 → 전국적인 홍작에도 불구하고 만석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둔전인 ‘대유둔’은 대풍작을 이룸. 나오는말 - 단순히 외형적 모습에만 치중해 화성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 축성에 담긴 정조의 위민 정신과 개혁정신을 계승해야 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교과서 활동에 ‘화성 건축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있음. 학생들이 화성건축의 목적을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성이 가진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	V. 조선 사회의 변동	조선 후기 은광 개발 억제 배경과 실상(권내현, 2019)
정조는 민생 안정과 문화 발전에도 힘썼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고, (중략) 수공업과 광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물품을 생산하던 장인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자유롭게 물품을 만들어 장시에 팔았다. 수공업이 발달하여 광물 수요가 늘자, 정부는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다.			1. 양란 전후 은광 개발 추이 1. 조선은 전통적으로 은광의 개발, 은의 중국 유출 전통적으로 억제 2. 16세기 선조대에도 은광 개발 억제는 유지되었지만 불안정 1) 임진왜란 전후 대외적 상황 변화 : 전쟁 중 명군은 은 요구, 직접 은광 개발 2) 선조대 은 채굴 부분적으로 허용 ① 선조가 은 채굴에 소극적인 이유 : 국내 은 생산이 알려질 경우 명의 은 채굴, 여진의 침략 욕구 자극 우려 ② 전쟁 후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호조의 요청으로 은 채굴 부분적 허용 3. 17세기 전반 여진의 조선 침략, 명청 교체 혼란 속에서 은 생산 활기를 띠지 못함 4. 17세기 후반 은 생산 증가 1) 은광과 납광의 개발 ① 전후 재정상의 필요, 북벌론과 청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필요에 따라 납으로 만든 탄환 수요 증가 ② 호조가 은점 전관하되 수세한 은은 호조가 차지, 납은 호조에서 각 군영에 나누어 주도록 결정 2) 설점수세제 실시 ① 민간 자본의 설점 유도, 채은관을 파견하여 수세 ② 17세기 후반 별장제(별장이 설점과 수세 담당)로 전환 3) 일본에서 대규모 은 유입 5. 18세기 일본 은 유입 감소 II. 영조대 억제론의 배경 1. 18세기 일본 은 유입 감소로 호조의 수입이 감소, 하지만 수입에 비해 지출(대청 사행)이 계속 늘어나 호조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 호소 2. 호조는 국내 은광에서 수세 확대 노력 1) 설점수세권 확대 : 군영뿐만 아니라 감영에 대한 관리권 확대 2) 은광 개발 : 참채 방지, 은광 개발을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인식 3. 하지만 영조는 은광 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1) 표면적인 논리 : 은으로 인한 외부(청, 몽고)의 침략에 대한 우려 ① 하지만 청이 은을 강압적으로 징색하거나 또는 그 필요에 의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②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몽고가 청을 대신해 중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있음 2) 현실적인 명분 : 은의 유출이 청에게는 번영을, 조선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불러온다는 인식(국내산 은과 중국의 비단을 교환하는 무역 방식) 3) 영조 외 많은 관료들은 광산에 유민과 무뢰배들이 모여들어 도적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4. 영조의 은광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은 생산 지속, 이는 현실에서의 무역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 1) 17세기 후반부터 자연산 삼의 품귀로 은으로 대체, 이뿐만 아니라 외교, 역관과 상인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음 2) 은화를 제작해 국산 은이 국내에서만 유통되도록 하는 방안 고려, 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으로의 유출을 제어할 수 없음 III. 정조대 억제책의 확산 1. 몽고의 중원 가능성이 사라지고 조선의 대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2. 영조의 은광 억제책이 대외적 측면이 컸다면 정조의 은광 억제책은 대내적 측면이 크게 작용

	1) 정조는 국내산 은으로 중국의 비단을 무역하여 사치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 의식에 공감, 잠상과 잠채로 인한 무뢰배의 폐단 크다고 인식 2) 숭본억말(농본주의)을 명분으로 내세워 농업을 돌보지 않고 광산의 이익에 매몰된 관리, 광산 경영에 참여하는 이들 비판 3. 정조 말년 은광 신설 자체 금지 4. 정조의 강력한 은광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은광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료와 지식인(우정규,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들 역시 존재 5. 18세기 후반 금과 홍삼이 대청 무역에 대한 부담을 감소 시킴 1) 은광에 대한 억제는 사금광 개발 자극, 금은 일시적으로 은을 대체했지만 숭본억말의 논리로 개발 억제 2) 포삼제의 실시로 홍삼이 은을 대체하면서 실제 무역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짐 IV. 맺음말	1. 영조와 정조대 상업에서의 일정한 진전과 달리 은광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 부재 2. 18세기 조선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여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함 : 광업 억제책을 실시해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아 지방의 농업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함 3. 광산 개발과 관련 기술의 확보를 통한 국부 증진, 수입품의 국산화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요청했던 일부 관료와 지식인들의 경제관에는 부응하지 못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정조가 실시한 신해통공 등 상업 정책은 숭본억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 정조의 상업 정책은 단순한 숭본억말책이 아닌 무본보말론(농업을 본업으로 하되 말업의 이점을 활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상업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를 통해 민생 안정을 추구한 것이 무본보말론이라면 이는 광업 정책에도 적용됨 - 영조와 정조는 은광에 대한 국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수세 이익의 흡수를 위해 노력함, 하지만 상업과 달리 광업의 성장과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V-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조선후기 어찰의 전통과 『정조어찰첩』 이근호,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2009)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더욱 강력한 탕평책을 시행하였다. 그는 영조 대에 세력을 키운 외척 세력을 제거한 후, 그동안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남인과 소론을 적극 등용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장각을 정비하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정치 개혁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동안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던 서얼을 규장각의 관리로 등용하고, 노비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였다. 한편 정조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광산 개발을 장려하였으며,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상공업을 진흥하였다. 나아가 편찬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대전통편』, 『택지지』 등을 편찬하였다. ●박제가, 이덕무, 서이수 등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호조의 행정 사례집이다.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의 여러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아버지인 사도 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쌓았다. ●도량간 노비를 잡아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추새를 금지하였다. ●사전 상인의 특권인 금난전권을 없애 비교적 자유로운 상품의 매매가 가능해졌다(신해통광).			I. 머리말 1. 『정조어찰첩』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모음집)의 공개로 어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킴 2. 본고의 방향 제시 - 정조대 이전 국왕들의 어찰 활용 사례와 목적 정리 - 숙종대부터 선왕의 어찰 내지 봉진 사례의 빈번한 양상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 - 『정조어찰첩』에 반영된 정조의 인사 관리 실태 II. 정조 이전 어찰의 활용과 봉진 1. 국왕의 어찰 활용 전통 ① 어찰(= 어진, 신한)이란 ? 국왕의 서찰 ② 국왕의 행위자체가 공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 해볼 때 어찰은 사적인 성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여야 함. ③ 조선시대 국왕의 어찰 활용은 통치술의 통상적인 방법 중 하나였음 - 세종, 문종 : 현장에 있는 신료를 격려하거나 정책에 대해 논의 - 선조 : 어찰을 자주 활용 / to 이항, 기대승, 성혼 : 관직에 계속 머물게 하거나 불러들이는 내용 / to 송언신 - 광해군 : 밀지 형식의 어찰을 주로 활용 - 효종 : 국정 운영에서 주로 활용(협조를 구하는 것이 목적) / to 송시열, 정태화, 김육 / 숙종, 경종, 영조 또한 마찬가지였음 2. 선대 어찰 봉진의 정치 사회적 의미 ① 숙종대 이후 앞선 선왕들의 어찰 및 어필을 봉진하는 사례가 빈번함 why? 관직 진출 - 1차적 목적 : 봉진자의 관직 진출 - 이러한 특전은 왕권강화에 주력하던 국왕의 의도와 결합한 측면이 있음 III. 『정조어찰첩』에 나타난 인물 평가 - 어찰첩에 등장하는 인물 : 약 360명 1. 이전 시기 인물 평가 ① 정조대 후반 인사정책에 대한 정조의 입장을 알 수 있음 :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 파악 및 등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함 ex. 한원진, 영남 지역 인사 및 충신 후손들의 등용 ② 의리 문제에 관련되어 신하 혹은 선비들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 ex. 송시열 ③ 어찰첩을 통해 탕평책을 피력하고 있으며 탕평의 대상은 당색 초월, 지방의 여론까지도 조정하려는 모습이 보임 2. 당대 인물 평가 및 인사 관리 ① 정조가 어찰을 통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였던 것 : 인사문제 ② 인물평가 - 서용보 : 정조-심환지 메신저 역할, 벽파계 인사로 일관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함 - 어용겸 : 정조-심환지 메신저 역할,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음 - 민종현 : 유연한 성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가 3일 뒤 두둔하고 보호토록 지시함 - 이시수, 이만수 : 소론 계열이며 시파, 의리 지킴, 적극적으로 포섭하도록 지시함 - 김재찬 : 시파, 앞뒤가 다르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습속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함 ③ 신료들에 대한 호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정의 정치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도 주목하였음

	IV. 맺음말 1.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에 처한 국왕의 경우 어찰을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음. 2. 정조는 복잡하고 미묘한 정국상황 속에서 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주 어찰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3. 정조의 인물평가 및 인사 관리 기준, 호악의 기준 :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사류의 의리를 지키는 자세 4. 이전 시기 국왕 또는 같은 시기 중국의 어찰을 포함한 국왕문서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탕평정치 및 왕권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조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어찰첩을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V. 조선 사회의 변동 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③ 세도 정치의 전개	오종록, 2001, 세도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2001 겨울호』
탕평 정치의 의의와 한계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탕평책은 봉당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국왕이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정치 권력이 왕과 그 주변의 소수 정치 집단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정조 사후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세도 정치의 대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왕실과 혼인을 맺은 김조순 등 안동 김씨를 비롯한 노론의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이어졌다. 세도 가문은 비변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군영까지 장악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왕권은 크게 약화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다. 세도 정치 시기의 국왕들은 왕권을 행사하여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세도 가문의 위세로 왕권을 강화하지 못하였다. 세도 정치의 폐단 세도 가문에 맞서 비판하고 견제할 정치 세력이 없어지자, 세도 가문은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 과거 시험의 부정뿐 아니라,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세도 가문과 연결되지 않으면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양반들은 변변치 못한 한직을 전전하거나, 관직을 잃고 향촌으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몰락 양반 중 일부는 반란을 꾀하거나 농민 봉기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다. 삼정의 문란 조선 후기에는 나라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토지세(전정)와 군포(군정), 환곡(환정)의 삼정이 있었는데,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삼정도 크게 문란해졌다. ... 정부는 임행어사를 파견하여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다.			세도 정치와 한국적 정치문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는 정치문화이다. ‘정치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던 시대’라고 하면 19세기 전반의 세도정치를 떠올릴텐데, 이는 한편으로 현재를 비추는 거울 같은 느낌을 주며 종래의 연구성과를 보더라도 세도정치는 현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되새겨볼 점이 많다. 세도(世道)와 세도(勢道)의 차이 세도 - 세도 정치 : 1800년 순조 즉위부터 1863년 고종 즉위까지 조선왕조의 정치형태 - 세도 정치를 어떤 것으로 보는가는 ‘세도’의 뜻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 있음. ① 『근세조선정감』 - 세도(世道) : 세상의 올바른 도리이자 그 도리를 확보한 사람을 뜻함. 왕이 세도의 책임자로 정하면 모든 관원이 그의 명령을 듣고,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일과 관료의 보고를 세도에게 알린 다음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먼저 세도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존재 ex) 조광조 · 정인홍 · 송시열 등 → 헌종 사후 철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세도가 변질되어 있었다고 비판(홍선대원군의 치적을 부각시키려는 목적) ② 일제시기 - 세도(勢道) : ‘세도정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부패한 정치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됨. ‘조선후기 왕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세도정치가 등장하고, 세도 정치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굳어지게 됨. but,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음. 망국책임론의 문제 조선의 멸망에 세도 정치는 어느 정도나 책임이 있나? 조선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 사실상 망한 상태였음. 세도 정치가 끝난 뒤부터 조선이 망하기까지는 약 40년이라는 기간이 가로놓여있으므로 망국의 책임은 대한제국때, 좀더 들어가더라도 고종과 명성황후가 정치를 주도하던 때에서 찾아야 함. 그럼에도 망국의 원인을 세도 정치에서 찾는 이유는 ① 그레야 대 한제국 때의 정치, 고종과 명성황후가 주도하던 때의 정치적 책임이 약해지기 때문임. ② 더 나아가 명성황후 일가가 권력을 농단한 것을 세도 정치의 부활로 보는 시각에서는 세도 정권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추구하여 나라를 망쳤고, 변변치 못한 인물이 왕이 되어 왕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 → 조선 왕실을 대신하여 일본 천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조선 민중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팽려 있음.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천황이 조선을 지배해야 조선 관리들의 부패와 탐학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조선 민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 일본인 학자 : 조선을 멸망시킨 일본의 책임 희석, 일본의 조선 지배 정당화 - 한국인 학자 : 고종과 명성황후의 책임 문제를 가리기 위해

세도가 필요했던 이유

세도 정치가 조선왕국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 다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으면 세도 정치를 객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될까 하는 과제. 이를 가능하게 위해서는 왜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음.

조선은 학자관료 내지 선비들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사회로 각 시대의 왕은 자신의 세도를 보조 또는 보완해줄 신하가 필요했고 국왕이 원만히 정치를 행하려면 왕위계승의 정통성과 아울러 뛰어난 학문능력이 필요했음.

- 영조는 다른 당파에 비해 덜 배타적인 신료를 모아 탕평정치를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 왕의 뜻대로 정치를 운영하기는 수월했지만 각 당파의 정예 이론가들(뛰어난 학자관료)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격이 떨어지는 관료들 다수가 주요관직에 진출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됨.

- 정조는 이 문제를 각 당파의 대표적 이론가를 중심으로 탕평을 이루어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 당파의 논리를 더 높은 수준에서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했음. 정조 스스로는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임금이자 스승으로서 신료들을 성공적으로 통제함.

문제는 후대의 왕들에게도 그러한 자질이 필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임금이 뛰어난 학문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경우를 대비하여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세자와 혼인시키기로 약정하고 김조순에게 세자의 보호를 맡김. 김조순의 집안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노론 세력의 대표 가문이었고, 고위 관원도 많이 배출한데다가 김조순 자신도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 정조 사후 순조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세도가로서 김조순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뒷날 순조가 자신의 구상대로 정치를 운영하려 할 때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세도정치의 문제점은 차츰 증폭되어감.

세도정치 때의 부패지수

- 정치 : 세도 정치 이후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관직, 지방 수령, 나라의 관문이자 무역품이 드나드는 곳인 의주부윤과 동래부사 자리는 모두 10여 개의 유력가문 출신이 모두 차지함. 지방 양반은 과거에 급제해도 역찰방(수령의 폭정 여부나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역로에 파견하던 직책) 정도만 맡게 됨.

- 경제 : 삼정문란 - 조세, 군포, 환곡을 규정 이상으로 걷는 것이 상례화됨.

- 관리들의 부패와 탐학 →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도 세도가의 탐학이 원인. 농민항쟁 진압 후 안동김씨 김조순 가문은 풍양조씨 조득영 가문의 협조를 받으며 반남박씨 박준원 가문을 견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 조득영이 박준원의 아들로 비변사의 요직을 맡고 있던 박종경의 탐학을 탄핵, but, 조득영도 마찬가지. 암행어사 서능보가 조득영의 비리를 국왕에게 아뢰었으나 조정에서는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하여 서능보를 파직시킴.

세도정치 시기 비리와 부패상은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런 문제가 이 때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님. 이 시기에 유독 왕권이 미약해서 심각한 비리와 부패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었음.

정치부패는 왕권이 약한 때문?

- 세도정치 시기 왕권 문제 : 세도 정치기의 왕권은 정말 약했을까?

- 세도가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왕권! 그렇다면 세도정치 때의 왕권은 어느 수준?

- 조선의 왕권은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었는가?

① 제도와 체제

순조는 11세에 왕위에 올라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함. 이 시기 정조가 만든 장용영을 없애고 정약용 · 박제가 등 남인이나 서얼 출신 학자관료를 가차없이 내쫓는 등 노론 벽파의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으나, 순조가 15세 될 무렵에는 어쩔 수 없이 수렴청정을 끝내야 했음. 순조가 벽파를 공격하자 위기를 느낀 정순왕후가 다시 수렴청정을 시도하였으나 정순왕후의 8촌이자 벽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의정 김관주조차도 다시 수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조선의 제도와 관행은 15살짜리 왕이라도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튼튼히 갖추어져 있었음.

	② 성리학 이념 : 왕권에 대한 양날의 칼 - 성리학 이념은 신료와 백성들에게 강력한 충성을 요구하지만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자발적인 충성을 얻어내기 어려웠음. 문제는 임금답지 못한 임금을 규정하는 잣대를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쥐고 있었다는 것. 예를 들면 광해군은 중요한 개혁이라 할 대동법을 실시하고 중국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를 잘 펼쳐 국가의 보존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효를 저지른 군주로 지탄받아 왕위에서 쫓겨남. 당시 양반들은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노비와 농민들을 성리학 윤리로 다잡으려 했기 때문에 광해군의 외교마저도 지탄의 대상으로 삼은 것. ⇒ 조선은 몇 살에 어떤 인물이 왕이 되었는데에 의해서만 왕권의 강약이 정해질 정도로 미숙한 사회는 아니었고, 세도정치 때의 부정부패는 주요 가문 출신 고위관직자들이 비변사를 통해 국정을 단단히 장악하여 새로운 요소가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 낸 데서 나온 결과였음. 부패는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권력 집단의 범주가 점차적으로 크게 축소된 가운데 그 폐쇄성이 강화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힘의 원천은 여전히 왕권에 의해 위임된 관직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그 권한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것임. 새로운 정치문화를 위하여 세도정치 시기에는 ① 국가 전체 및 국가를 구성하는 각 조직의 자율적 정화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 - 삼사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당파 싸움의 도구로 전락 - 의정부 대신 최고 국정기구로 변신한 비변사도 세도가와 주요 가문 출신 관료들이 장악함. 암행어사 선발도 비변사가 담당 ② 자기 집단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시함. - 임금이나 자기의 뒤를 봐줄수 있는 존재와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만 의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 → 팽배의리 - 국가나 인류 등 더 큰 집단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지 못함. ⇒ 현재도 사회 곳곳에 지연과 학연을 포함한 각종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봉건적 의리’가 작동하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문가 집단과 정치판에서 자율정화 장치와 기능, 더 큰 의리가 필요함. 하지만 이처럼 높으신 분들의 집단이 자발적으로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더 큰 의리를 위해 봉사할 것 같지 않으므로 대중부터 올바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더디지만 더 확실한 길일 것이다..(?)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세도 정치 시기와 현재 정치의 모습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말해보기 2.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동아출판	VI-1 국민 국가의 수립	[사실, 이렇게 본다 : 대원군 집권기의 역사적 위치] 흥선대원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갑수,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내일을 여는 역사(2006)
			1. 오해와 편견 - 흥선대원군의 대내외적 정책 나열 및 흥선대원군 정권과 그가 처한 시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함 -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와 그 한계를 살펴봄여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함

19세기 흥선 대원군의 개화	흥선 대원군의 집권과 개화 19세기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져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무렵 철과 일본이 외세의 압력으로 개화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감까지 높아졌다.
정치	*인종 감제 개혁 추진 *연세사 개혁, 사림 정치
경제	*호포제 실시 *상벌제 실시
서민 생활 호포제 실시 후에도 흥선 대원군에 반발하였던 집안 유생들이 고종의 직접 통치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어버지 흥선 대원군 은 권력을 장악하고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으로 두 차례의 양요를 겪은 흥선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통상 거부 의지를 널리 알렸다.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통상 개화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박규수 등의 통상 개화론자 들도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윤요 사건의 압력 을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일본의 부산을 윤요까지 강화도를 장악하고 관아와 민가를 보호하였다. 문호를 열었다(1876).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2 p.168

2. 역사적 상황과 개혁의 이념

1) 흥선대원군 집권 직전의 역사적 상황

- 고종이 즉위하기 직전의 국내외 정세(제2차 아편전쟁, 임술농민봉기)에서 조선 정부는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 고종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혈연적 약점이 있었음

⇒ 당시 정세를 조선왕조의 건국 초기 상황에 빗대며 조선 건국기를 강조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제시함
: 부국강병 정책의 추진이 가능했음

2) 흥선대원군 정권의 이념에 대한 평가

a) 기존평가 ① 시대착오적인 ‘복고주의’, 반동적 성격의 개혁(일부 정책에 개혁적 성격이 있지만 정책의 지향점은 왕조의 부흥)

⇒ 저자의 평가

- 복고를 지향하였으나 국왕에 버금가는 사람이 왕조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며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평가의 초점은 '복고'를 지향했는지의 여부보다는 복고를 표방하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에 집중해야 함
 - ↳ 정치 제도상의 복고(비변사 폐지, 의정부 기능 회복, 삼군부 부활)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형식 및 운영체제상 조선 초기와 공통점이 없음
 - ↳ 삼군부는 조선 초기 과도기적인 기구(10년 운영), 명칭만 같지 운영체제상 공통점 없음
 - ↳ 비변사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기구이기에 일시 폐지가 어려웠고 결국 권한 분산이란 방식으로 유력 가문들의 약화를 꾀함, 초기의 제도도 아니었음
 - ↳ 의정부와 삼군부로 군국에 관한 사무가 분할되는 것도 조선 초기의 정치제는 아니었음

- 흥선대원군 정권이 내세웠던 조선 초기의 질서라는 것은 조선 초기에 실재하였던 것이 아닌 후기에 변화되어 정착된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동원되고 상상된 질서였던 것

- 서원 철폐 : 사족들의 질서가 정착되기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선 후기 이래 고착된 사회 질서를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
신분적 차별성의 완화라는 성격이 강함.

b) 기존평가 ② 세도정치의 운영형태를 답습하였다는 점

⇒ 저자의 평가 : 세도정치기와 비교하여 개혁의 양이나 질에서 비교될 수 없고 세도정치의 정치운영형태가 당시의 당연한 전제였다.

3.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

c) 기존평가 ③ 당시 시대적 과제(서구 과학기술 도입)에서는 한참 뒤늦은 개혁일 뿐이다.

⇒ 저자의 평가

-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1860년대)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 혹은 인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아직 밝혀진 바 X
- 개화파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들도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에 협력하였음
- 개항이 늦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갖는 유리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조미수호조규 vs 조미수호통상조약)
-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전후하여 취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임

4. 개혁의 한계 : 수탈에 기반한 부국강병정책의 한계

- 경북공 중건, 군비확장 : 소모성 지출
-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개혁을 통한 공평한 과세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신분제의 폐지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과다한 재정 수요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서양과의 과도한 긴장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로 맞서는 것은 잘못됨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홍선대원군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한계에 대해 비판을 할 때 ‘당시 상황상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이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2. 교과서 외적인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하여 홍선대원군 정책 평가 활동하기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중학교 역사2	미래엔	Ⅵ. 근·현대 사회의 전개 ○1. 국민 국가의 수립	망국의 리더쉽, 고종의 리더쉽(2015,하원호)
■ 문호 개방과 개화를 둘러싼 갈등 19세기 초 열강들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통상 수교를 거부하였으나, 그가 물러난 이후 1876년 일본의 강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화의 움직임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민중과 구식 군인의 저항(임오군란)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개화파는 급진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갑신정변). ■ 낡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 농민들도 전라도에서 봉기하였다. 이들은 신분제 폐지, 조세 제도 개혁, 외세 배격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낡은 체제를 바꾸려 하였으나 일본군에 진압되었다(동학 농민 운동). 일본의 간섭 아래 개화파가 주도한 새 정부는 농민군과 개화 지식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분제 및 낡은 악습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미사변)을 저지르고 조선의 내정에 더 깊이 간섭하였다. ■ 자주적인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열강의 침탈 속에 조선 정부는 1897년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여 대내외에 자주독립국임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로 즉위한 황제를 중심으로 상공업 진흥, 실업 학교 설립 등의 개혁(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화 지식인은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토론회 등을 열어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독립 협회를 조직하여 자주독립과 근대적 민권을 강조하였다. 근대적인 대중 집회인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간섭을 규탄하고 자유 민권 의식을 확산시켰다. ■ 국권 수호를 위한 노력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 달라진 고종의 정치력 평가 1. 고종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아버지인 대원군의 등에 업혀 있거나 민비의 치마폭 밑에 있다가 결국은 나라 망해먹은 왕 = 부정적 이미지 2. 1980년대 이후 고종이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증명됨. 3. 1990년대 이후 평가 변화 그 동안 대중적 이미지나 학계의 고종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강력히 비판, 고종이야말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자주적 근대화를 실현하고 마지막까지 국가를 지키려던 ‘우리의 황제’ 라는 주장이 등장 근거1) 고종이 18세기 영정조의 정치 이념인 ‘군민일체의 인식아래 신분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세계를 구현하려던 것’을 계승하려 했는데, 개화파(김옥균)은 입헌군주제라는 완전한 서구화를 주장하여 ‘자주적 근대화’를 방해하였다. 근거2) 일체의 국권 강탈은 고종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개혁이 뜻밖의 성과를 이루자 이를 경계한 일제가 러일전쟁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국권을 강제로 탈점한 것 4. 고종을 미화하는 입장의 주장? ‘구국의 인물’인 고종을 ‘망국의 인물’로 비난하는 인식은 일제가 심어놓은 것이고, 역사학계도 이에 무임승차 중 / 그 동안의 역사서술이 고종이 아닌 개화파, 농민 등 권력의 외곽으로 이루어짐. * 필자는.. ? 그 문제의 정치적 리더쉽이란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종의 행위가 국가를 위해서라는 것은 왕권과 국권을 동일시 보는 전근대 사회 시각에서의 미화일 뿐, 영정조의 개념을 계승했더라도 온 세계가 근대사회로의 진입의 기로에 있던 18세기에 왕권과 국권을 혼동하던 고종은 ‘구국의 인물’로 재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외세가 권력의 배후인 고종의 정치력 1. 임오군란 고종은 개화에 관심이 많긴 했으나 정치적 부패상은 개선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임오군란이 발생하여 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결국 청에 파병을 요청하는 것. 정치적 입지가 축소된 고종은 이를 찬성하였고 결국 국내의 권력다툼을 남의 나라 군대로 해결하는 선택하여 이들에게 조선을 협박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2. 갑신정변 친청의 정책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고종을 미화하는 학자들의 주장인 ‘군민일체의 인식아래 신분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세계를 구상’한 고종이라기엔 갑신정변 단계까지 고종의 정책에는 ‘군민일체’나 ‘신분적 불평등을 배제’한다는 개혁은 전혀 보이지 않음. 3. 갑신정변 이후 청의 간섭으로 인해 러시아나 미국을 끌어들여 청을 견제하려고 노력한 고종. 외교적으로 독립국임을 내세우고 구미로 사절단을 보내는 등 청에게서 벗어나고자 자주적 외교정책을 펼침. 그러나 이는 ‘국권의 확보’를 위해서라기보단 조선에서 고종 자신의 권위가 외세에게 침해 당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함 이었으니, 외교정책에서의 정치적 리더쉽 자체가 자신의 권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다. 4. 동학농민운동 반청적 외교성향을 보였으나 국내의 민중 봉기를 청군을 끌여들여 해결하려는 이중성에서 왕권과 국권을 혼동하는 고종의 전근대적 인식이 드러남 ■ 무권리의 인민과 고종의 리더쉽 1. 광무개혁을 통한 군사력 강화 노력 외세에 의존하던 군사력에 있어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함. 근대 국민국가의 군사제도는 국민군제도이나 강력한 군주제를 바란 고종의 군대는 왕에

만들었다. 러·일 전쟁 중에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였다. 이후 일제의 침탈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의병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안중근 등 의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또 신민회와 같은 각종 단체를 만들어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애국 계몽 운동)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저항을 폭압적으로 진압하였다. 한편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게 충성하는 용병제일 뿐이었다. 러일전쟁이 현실화되는 1903년에 가서야 징병제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의회개설,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운동을 억누르고 전제군주제를 강화한 고종에게 국민통합에 기반한 국민군제인 징병제는 불가능했다. 국민군제를 하려면 국민에게 참정권 등 일정한 권한을 주어야 하지만 고종의 대한제국에서는 불가능하게 했던 것. 2. 왕실의 강화 고종은 국가기구의 권한을 의정부보다 왕실의 궁내부에 권한을 집중시켰으며 인사문제에 있어 고종의 의향에 따라 빈번히 교체하고 측근들이 돌아가면서 행정을 맡았다. 즉, 고종이 국가기구를 사유물로 생각했던 것이 드러난다. 이는 <u>왕권 강화가 국가의 독립이라 생각하는 왕권과 국권을 혼동하는 고종의 전근대적 권력 인식</u>이 배경이 되는 것이다. ■ 망국의 고종 국민적 동의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한 적 없는 고종이 대중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종은 여전히 외세에 기댈 수 밖에 없었고 러시아에게 절박한 호소를 하였으나 한국을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 퇴위된 고종은 러시아로의 망명을 선택하였지만 러시아는 국제적 혼란을 우려하여 거절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의병의 도움을 받아 1910년 러시아로 도주하기로 결정하며 고종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보호해주길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으나 러시아 측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고종의 시대는 근대사회의 이행이 안 되면 바로 식민지로 가는 길만 남아있던 제국주의 시대였다. 왕권과 국권이 분리되지 않던 중세사회와는 다르다. 결국 고종의 리더쉽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미화되서는 안되며 이는 식민지가 된 이후 종친이나 옛 관료, 봉건적 유생 정도 외에는 왕정의 복고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서 국민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전근대사회의 인물인 고종을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 고종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황제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교육	Ⅵ. 근·현대 사회의 전개	신진숙, 2017, 「호랑이 사냥을 통해 본 식민지 경관의 생산방식 고찰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정호기』와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9, 91-123쪽.	
1.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아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I. 서론 1. 경관이란 시각적으로 재현된 풍경을 포함하여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경관 및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경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는 과정을 의미 2. 호랑이 멸종 이전 호랑이와 조선인 사이에 형성된 삶의 영역과 멸종 이후 호랑이 표상화 과정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고리를 식민지 시기 ‘호랑이 사냥’ 담론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 논문의 목적 3. 생존을 위협하는 호랑이 그 자체로 위험한 동물로 포호정책의 대상, 일본의 해수 구제 정책을 포호 정책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도 존재, 한편 호랑이는 민속 신앙의 대상이자 민족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로 이중성을 지님 4. 일본 오사카에 근거를 둔 자본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1917년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 행사를 기획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 그의 사냥 기록물 『정호기』와 당시 조선인 기자로 유일하게 사냥 대회에 참여한 심천풍이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정호기」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담론을 분석 II. ‘이미지’로서의 경관, ‘삶’으로서의 경관 1. ‘이미지’로서의 경관은 경관을 눈에 보이는 하나의 대상으로 수동적이며 시각화된	3) 관찰자와 이야기꾼 1. 『정호기』의 기록자이자 정호군의 기획자인 다다사부로 는 직접 사냥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사냥 무용담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처럼 야마모토와 포수의 관계가 재배치 2. 최순원이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정호기』는 서술자가 최순원의 이야기를 옮겨 적는 형식으로 쓰였음에도 이야기의 흐름을 마치 3인칭 소설처럼 기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모습에서 식민지 경관 자체가 야생의 공간이며 이 공간을 방문한 제국의 문명자라는 시각이 반영 3. 반면 『매일신보』 속 심천풍의 기사는 최순원을 “나”라고 하며 1인칭 화자의 목소리로 직접 등장하는 것이 특징, 즉 사냥꾼 자신이 내러티브의 주체가 되어 실제 식민지 산야를 몸으로 경험한 존재라는 시각이 반영 4. 야마모토 정호군이 조선의 산야를 누빌 수 있던 것은 당시 총독부가 진행한 해수구제 정책과 접합된 덕분에 조선인이 일본 해수구제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동조하거나 유인되었을지라도, 식민지 경관의 생산방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해수구제 정책은 일제가 방대한 원시림을 목재산업의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식민지 경제 논리외도 무관하지 않음

	외부세계로 한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관조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식민지를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성 등 서구의 이분법적 사유 체계를 바탕으로 제국과 식민지를 지리적으로 위계하고 식민지에 대한 제국의 권력 및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 3. ‘삶’으로서의 경관은 경관이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경관 자체를 끊임없이 인간의 공간적 실천에 따라 변형 가능한 역동적인 형식으로 보는 것 4. 경관 자체가 완성된 구조물과 같은 상징체계가 아니라 세계 내 존재들의 수행적인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거주자 관점’에서 경관을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 5.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호랑이 사냥 담론에 기입된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 거주민의 실천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살펴보는 것 III. 호랑이 사냥에 나타난 식민지 경관 생산 과정의 특징 1) 호랑이 사냥의 목적과 배경 1. 아마모토 다다시부로의 『정호기』에 따르면 호랑이 사냥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청년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문화적 이유로 포장, 실질적으로는 일본 제국의 자본가로서 제국 신민지 지배를 전시하는 스펙타클 창출에 집중 2. 조선인들은 일제의 해수구제 정책에 표면적으로는 동조한 것으로 보임, 호랑이를 신성시하면서도 호랑이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큰 반대가 없고 조선인 포수들이 이 대회에서 활약) 3. 제국의 식민화 주체 과시를 알 수 있는 점이 아마모토가 경원선 철도를 따라서 이동하며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되돌아오는 선형적인 코스를 선택, 심정풍은 「정호기」에서 ‘호랑이는 그만두고 귀신의 모가지라도 집어올 힘이 있는 돈을 많이 가지신 어른뿐이라’라며 조롱투로 서술 4. 8분대로 조직돼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정호군의 사냥 경로가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 비선형적으로 이동한 것과 대비됨 5. 즉 식민지 경관을 위협하고 야생적인 호랑이 사냥터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이미지로 대상화하여 조선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제국 위상을 선전, 이는 조선인 포수가 조선의 산야를 그 자체로의 삶으로 인식한 것과 대조 2) 사냥감의 처리 1. 『정호기』에 기록된 일본인 포수 혼다와 조선인 포수 강용근 사냥감 처리방식에서 경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음 2. 당시 정호군의 사냥은 대상이 호랑이 등 맹수뿐만 아니라 노루, 산양, 꿩 등도 포함 (먹잇감의 감소는 맹수 개체의 감소로도 이어짐)	4) 역사적 기억의 중첩 1. 『정호기』와 『매일신보』 모두 정호군의 기원으로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호랑이를 사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 2.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과 임진왜란 때 호랑이를 사냥했던 무사 가토 기요마사를 겹쳐 읽으면서 호랑이 사냥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정당성을 제시한 것 3. 『일본서기』에 백제에서 호랑이에게 자식을 잃은 일본 무사 카시와데노오미 하스히가 호랑이를 퇴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본 학자들은 무사가 호랑이를 퇴치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러한 일본 대중의 역사적 기억을 정호군과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 4. 정호군의 일정에는 조선의 발상지 유적, 태조 고향제의 어태를 모신 ‘준원전’을 둘러보는 내용이 있는데, 『정호기』에서는 조선의 유적이 황폐하고 방치된 곳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매일신보』에는 전사에 의해 관리되는 의미 있는 유적으로 그려지고 있음. 5. 조선의 역사가 소멸해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식민지를 야생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시각이 상호 조응하는 것 IV. 식민지 경관의 이중성, 재현된 경관과 경관의 실천 1. 제국의 시선에서 식민지 경관을 야생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행위와 결부, 제국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분리할 수 없으며, 고도로 정치화된 제국과 식민지, 중심과 주변, 문명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에 의거하여 경관을 바라보고 재현함, 식민지 경관은 중앙 권력에 통제되고 조정되는 수동적 공간 2. 조선인의 삶에서 식민지 경관은 삶의 일상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조선인의 삶에서 문화적, 역사적 경험들이 축적되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임, 거주자의 관점에서 경관이 삶의 실천과 작업의 수행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삶이 실천되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국의 경관 개념과 충돌 3. 이는 경관에 대한 수행 주체의 윤리적인 책임 의식과도 연관, 『정호기』에서 일본인 포수 혼다는 사냥된 동물을 일본 제국과 자본가의 소유물로 인식하며 트로피로 대하여 자연과 인간이 맺은 전통적인 윤리적 태도 역시 경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반면 조선 포수 강용근은 잡은 동물을 마을 어른신에게 드리는 문화적 관습에 충실하며 문화적인 책임감과 결합된 복합적인 행동으로 경험 4. 탈식민 이후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문화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 시기의 호랑이와 식민지 조선인 사이에 형성된 삶의 기억과 실천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	---

	3. ‘혼다는 노루 한 마리와 꿩을 들고 와서 열차 안으로 던지더니 말을 돌려 어두운 산으로 향해 달려갔다. 그는 떠날 때 표범이든 호랑이든 한 마리라도 잡지 못하면 벌 면목이 없다며 꼭 잡겠다는 맹세를 했다.’ 4. 혼다의 사냥감은 아마모토 다다사부로에게 헌납되었고 맹수를 잡지 못하면 벌 면목이 없다는 대목이 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줌. 호랑이 고기를 식식하는 연회를 도쿄와 경성에서 개최해 주목받은 다다사부로의 모습으로 보아 당시 호랑이 사냥은 정치적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의 지배를 전시하고 조선을 야생공간으로 소비하려는 목적을 보여주는 대목 5. 반면 『정호기』에서 조선 포수 강용근이 잡은 노루 세 마리와 산양 세 마리를 마을의 웃어른을 찾아뵙고 예를 표하는 뜻으로 드렸다고 기록함. 『매일일보』 기사에는 언급조차 없음. 조선인 기자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아님을 의미하며 즉 강용근은 어느 조선 사냥꾼처럼 사냥 후 잡힌 동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전통을 보여주며 거주자의 관점에서 실천을 통해 경관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줌	5. 일본의 해수구제정책에 의해 호랑이가 제거되었지만, 호랑이 표상 자체가 제거될 수 없었던 이유는 호랑이를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으로 이해했던 거주자와 경관의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됨. 즉 식민지 호랑이 사냥에 대한 조선인 포수의 참여는 일제의 해수구제 정책과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선인들이 가진 호랑이와의 생태적 관계에서 재사유될 필요가 있음 V. 결론 1. 『정호기』와 『매일일보』는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내려티브 구성 방식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음 2. 자연(호랑이)와 인간(문화)의 관계 설정에서 오는 차이로 식민지 경관은 제국의 시선뿐 아니라 거주민의 몸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경합적인 공간 3. 이를 통해 호랑이 멸종 이후에도 호랑이가 민족정체성의 표상과 상징물로 변천하는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음, 4. 호랑이 사냥과 관련된 서구인의 시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호랑이가 가지는 의미를 제고하고 싶음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1. 1910년의 일제 통치 방식을 헌병과 무력을 앞세운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제시할 수 있음. 2. 해수 구제 사업이 지니는 식민 지배성에 대해 고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6-1) 근대 문물의 수용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1-2)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	정재정, 「근대로 열린 길, 철도」, 『역사비평』, 2005.
교통·통신·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교통) 개항 이후 증기선, 전차, 철도 등 근대적 교통 시설이 도입되었다. 증기선은 세곡 운반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전차는 한성 전기 회사가 발전소를 세우고 1899년부터 운행하였다. 철도는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 경인선이 처음으로 개통되고,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철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가 철도 부지로 강제 수용되면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의 저항이 컸다. ----- 산업을 통제하고, 식민지 수탈의 통로를 구축하다 1910년대 일제는 식량 및 자원의 일본 반출과 일본 상품의 수입 판매를 위해 한국의 철도·도로·항만 시설을 확충하였다. 경부선, 경의선에 이어 호남선, 경원선 철도를 건설하여 한반도에 X자형의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였다. 또한 도로 수축 7개년 사업을 통해 간선 도로망을 건설하였으며, 부산, 인천, 목포 등 주요 항구와 기존 개항장의 항만 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를			1. 어떤 시각에서 철도를 볼 것인가 -한국 최초 철도 개통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으로 매우 늦은 편, 일본이 건설 및 운영 (일본: 도쿄-요코하마 1872년, 중국: 1881년, 영국: 1820년대) -근대문명 형성 과정에서 철도가 담당한 기능 컸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발전에 자극을 주었으며 철도 건설 및 운영에는 대량의 자금과 노동력 및 노하우가 필요하였으므로 다른 산업의 선구가 됨 -한국 철도는 러일전쟁 촉발의 도화선, 일제의 수탈과 억압의 도구였음 -사람, 물자, 정보의 유통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시간, 거리, 속도 관념이 확장 혹은 단축되었으며 철도 연선에 새로운 도시가 출현함 2. 철도망은 어떻게 확장되었을까 1) 경부선, 경의선 부설: 일본-한국-만주 최단거리 코스/한국과 일본 무역 촉진, 일본 자본가와 군부 수뇌의 욕구 반영 2) 호남선, 경원선 부설: 한국과 만주 철도 연결하고 경부선, 경의선 수송력 강화 등 X자 모양 기본 형성 3) 한국 철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 경영(테라우치 마사타케의 추진) 이후 조선총독부로 환원 4) 대대적 철도망 확장기: 만주국 설립 등 5) 중일전쟁 확대 철도 부설기, 군사적 성격이 강함 정리: 한국의 간선철도는 한국 내부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대륙침략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부설됨, 따라서 일본-한국-만주를 최단거리, 최단시간 안에 밀착시키기 위해 남북 종단관의 방향 채택했으며 대개 항구를 기점으로 한국의 정치적 중심도시와 곡창지대, 자원 지역을 관통하도록 선정 (한국 지형이 남북으로 뻗은 반도이며 산맥 역시 남북종관형으로 남북방향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철도도 대부분 해향과

통해 일제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시계와 철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을 바꾸다

일제 식민지 시기 근대 문물의 유입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을 바꿔 놓았다. 근대 사회는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고, 교통의 발달은 이를 더욱 촉진하였다. 시계가 널리 보급되고 학교, 공장, 관공서 등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근대적 시간관념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대한 제국 시절 건설된 경부선, 경의선에 이어 1914년 호남선과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X자형 간선 철도망의 틀이 잡혔다. 일제의 철도 건설은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침략이라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철도의 건설로 서울에서 전국 주요 지역이 하루 안에 닿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인의 공간 의식이 확대되었다.

사료

철도 건설이 끼친 영향

◎ 철도가 빠앗은 땅

중점이 되는 곳이면 몰라도 중간 장시나 지방의 역세는 화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탑승객이 많지도 않은데 어찌 20만 평이나 쓰는가. 이는 일제의 식민 계략이니……. 우리는 궁지에 몰려 미국의 인디언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 『황성신문』, 1901. 10. 7. -

◎ 철도가 가르치는 시간

철도는 규율 바른 시간에 의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민중에게 시간을 엄수할 것을 가르치는 까닭에 이 점에 있어 철도는 한국 사람에 대한 문명적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미국 공사 알렌이 경부선 개통식에서 한 말, 1905. 5. 25. -

도움글

철도는 일본이 한국의 토지를 비롯한 이권을 침탈하는 도구로 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인에게 근대적 시간관념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내륙을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고려해야 함, 그럼에도 한국 철도가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

3. 철도는 무엇을, 어디로 실어날랐나

-193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공업 발흥과 일본, 한국, 만주 경제블록 형성으로 인한 여객과 화물 폭주로 철도 운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1930년대 이전 철도화물: 농산품, 광산품, 공산품, 임산품 순

-1930년대 이후 철도화물: 광산품, 공산품, 농산품, 임산품 순

-전기에는 쌀, 조, 석탄이 가장 큰 비중/후기에는 석탄, 시멘트, 광석, 금속, 기계, 군수품이 높은 비율 차지-> 1930년대 중반을 경계로 식량수탈 제일주의에서 자원수탈과 군수공업화 우선주의로 전환되어 광공업품 유통이 농산품 유통 능가했기 때문

-1910년대 중반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70%가 철도 연선에 분포/한국인은 전인구의 5%만이 철도연선에 거주

4. 철도는 어떻게 노선을 선정했을까-경부선의 사례

-길은 오랜 세월에 걸쳐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 부작위적으로 형성/철도 노선은 부설 주체가 정밀한 탐사와 계산을 거쳐 정책적으로 선정

-일본의 철도 부설 슬로건 ‘국방공위(國防共衛) 경제공동(經濟共通)’: 철도를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공존공영을 이룩하자는 것

-경부선 노선 선정을 위해 5차례의 답사를 통해 노선을 선정함: 경부선을 통해 한국 남부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를 한번에 지배하려는 것/한국 시각에서 경부선은 서울과 지방의 수송을 원활히 하고 각 지역의 발전을 균등하게 만드는 데에는 결점이 많은 ‘기형선’임

5. 철도는 왜 표준궤간을 채택했을까

-궤간: 철도의 넓이/ 궤조: 철도의 레일, 철도의 넓이와 레일의 무게를 어느 것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열차의 크기와 중량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

-한국정부는 1896년 7월 17일 철도국을 설치함과 더불어 ‘국내철도규칙’을 반포하여 표준궤 채택하도록 규정했음

-경부선이 표준궤를 채택한 이유는 경부선이 단순한 식민지 철도가 아니라 장래 중국 및 유럽대륙의 철도와 연결되어 세계교통의 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

-표준궤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만주 및 중국 철도와 직접 연결되어 일본의 대륙침략을 선도하는 맥관으로 기능하게 됨

6. 철도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철도는 근대의 상징이자 남성의 표상이며 개척의 총아로 여겨짐

-한국인에게 철도는 억압과 공포의 대상

-철도가 한국의 사회, 경제구조를 어떻게 재편했는가,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이 어떻게 변해갔는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다양한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소재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1. 일제가 철도를 부설한 이유, 철도 부설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사례
- 2. 철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 변화된 생활상
- 3. 철도, 철도역, 우리 지역의 철도 탐구(왜 이곳에 철도역을 만들었을까?)

교과서	출판사	단원명	개별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역사2	비상	Ⅵ. 근·현대 사회의 전개	한국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의 전개와 의의(김용달, 2020)
반면, 통상과 개항을 반대하던 유생층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개항과 개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1. 머리말 1)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 : 한말 의병 봉기 - 1910년대 독립군 기지 개척, 무관 양성 - 1920~30년대 독립전쟁의 전개 - 1940년대 광복군의 연합 작전 2) 군사조직을 가지고 무장투쟁을 전개한 의병, 독립군, 광복군 중심/ 의열 투쟁 제외

올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항일 의병 투쟁으로 이어졌다. 우리 민족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사늑약 체결 등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농민층의 의병 참여가 두드러졌고,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하였다. 1907년 이후 의병 운동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과 조직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서울로 진공하려는 작전이 실패하고 일본의 탄압이 거세져 의병 운동은 위축되었다. 의병 가운데 일부는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이후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3·1 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가 무장 투쟁을 벌였다. 이 중 대표적인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1920)이었다. 일제는 독립군의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간도에 살고 있는 한인을 학살하였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자유시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었다.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3부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으로 통합되었고, 이들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도 무장 투쟁이 시작되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 의용대(1938)는 중국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벌였다. 근거지를 옮겨 다니다가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 정부는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한국 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켰다. 그리고 특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국내에 투입하는 작전을 준비하였다.	2. 한말 의병전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다 1) 독립운동? 근대에 들어와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민주국가를 세우는 일 2) 갑오변란(1894. 7.)에 저항하며 일어난 의병 봉기가 독립운동의 시작점 : 서상철, 김원교 등 양반 유생, 동학농민군 등 피지배 민층층 대거 참여 3) 의병전쟁 ① 전기의병 : 위정척사사상, 양반유생 의병장 중심 ② 중기의병 : 위정척사사상 있지만 구국운동차원에서 전개, 양반유생 의병장 중심(재야 유림보다 전·현직 관료 출신 다수), 평민 의병장 등장 ③ 후기의병 : 국민전쟁, 국권회복운동 중심으로 전개, 양반유생·평민·해산군인 등 대한제국 국민대중이 참여/ 일제의 ‘남한폭도대토벌작전’ 진압 4) 의병전쟁의 양상 ① 의병전쟁으로 시작한 초기 독립운동의 양상은 봉건적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함 : 이념적 측면으로 위정척사사상, 근왕주의 벗어나지 못함/ 조직적 측면으로 양반유생 중심 지휘부 등 봉건적 신분질서 잔존 ② 하지만 점차 위정척사운동의 성격 약화, 국권회복운동의 성격 강화/ 해산 군인의 의병 참여로 민관 통합, 해산 군인의 근대적 사고가 봉건적 사고를 변화시킴, 봉건 신민으로부터 근대 국민으로 변화 3.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1) 독립군단의 성립과 봉오동·청산리 대첩 ① 독립군단의 성립 - 경술국치를 전후해 새로운 독립운동전략 모색 : 국내외 군자금 확보, 독립군 기지 개척 및 무관 양성, 일제와 무장투쟁으로 독립전쟁 전개 - 대한독립단, 북로군정서, 국민회군, 북로군정서 등 재만 독립군단은 성립 후 군사 훈련, 무기 구입/ 국내 진공작전 전개 ② 봉오동 대첩(1920. 6.)/ 일제의 ‘훈춘사건’ 조작(1920. 10.)/ 청산리 대첩(1920. 10.)/ 경신참변(1920. 10.), 자유시참변(1921. 6.) 2) 3부의 성립과 활동 ① 북만주지역 독립군단은 대한독립군단 결성 - 신민부 결성 ② 남만주지역 독립군단은 대한통의부 결성 - 북벽주의계열 의군부, 임시정부계열 참의부 분립하여 나간 뒤 세력 약화 - 남아있는 독립군단 정의부 결성 3) 3부 통합운동과 조선혁명군·한국독립군의 성립 ① 재만 독립군의 무장세력 통일과 일제에 대항하여 효율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3부 통합의 필요성 인식 ② 정의부 주도로 전민족유일당 조직 축성대회 개최(1928. 5.) - 3부 대표 다 참석하지 못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협의회파, 축성회파로 양분되면서 실패 - 협의회파 : 단체중심 조직론 주장, 전민족유일당조직협의회 조직 - 축성회파 : 개인본위 조직론 주장, 전민족유일당조직축성회 조직 ③ 다시 정의부 주도로 3부 통합 회의 개최(1928. 10.)되었지만 의견 일치 실패, 협의	회파와 축성회파는 각기 방향 모색 - 협의회파 : 국민부 결성(1929. 4.)/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조직 - 당·정·군 체제 갖추게 됨 - 축성회파 : 혁신의회 결성(1928. 12.)/ 한족총연합회 조직 - 한족자치연합회 개편/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 조직 - 당·정·군 체제 갖추게 됨 4)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동 ① 조선혁명군 : 군사훈련 실시, 중국 항일세력과 한중연합군 편성해 활동 ② 한국독립군 : 중국의용군과 연합해 활동 ③ 1937년 중일전쟁 직후 무장부대 창설 추진 - 광복진선(한국국민당 중심 우파세력 연합) :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 한국광복군 - 민족전선(조선민족혁명당 중심 좌파세력 연합) : 조선의용대 4. 독립군에서 광복군으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전쟁전략 : 국군 창설, 적당한 시기(중일전쟁, 러일전쟁, 미일전쟁 등) 일제의 상대방과 연합작전을 벌여 민족독립 쟁취 2) 끊임없이 무장부대의 창설, 독립전쟁 추진 : 한국광복군 창설(1940. 9.) ① 한국광복군 창설은 병력 모집, 재정 확보, 중국정부를 상대로 교섭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 ② 하지만 중국군사위원회 협조 거부, 자력으로 광복군 창설 추진 - 군관학교에서 양성한 군사간부,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던 독립군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사령부를 구성하여 광복군을 창설 - 총사령부는 임시정부 주석 직할 하에 둬,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국군이라는 것을 명문화, 통수권이 주석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③ 조선의용대가 편입하면서 부대편제 개편(19402. 7.) 3)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발표(1941. 12.) ①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침략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 ②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전후 처리에서 참전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 4) 대일선전포고 이후 광복군은 연합군과 실제 공동작전 수행, 국내 정진작전 추진하다 광복 맞게 됨 5. 맺음말 :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1) 독립운동을 가장 독립운동답게 만들(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식) 2) 실제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큼 3) 독립운동을 관통하며 주류 4) 절대독립론을 독립운동의 이념과 실천으로 확립 5) 운동주체들이 봉건 신민에서 근대 국민, 근대 시민으로 성장 6) 국제적 안목과 연합작전 역량을 크게 배양
생각해볼 점 (모임 당일 토론했으면 하는 부분 / 수업에서 다룬다면? 등) - 한국광복군의 역사적 의의? 항일 무장투쟁의 의의?		